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65호

Wednesday, July 10, 2024 A

세계의 이목 워싱턴 DC로... “바이든 운명 걸렸다” 나토 75주년 워싱턴정상회의 개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워싱턴 DC에서 9일 개막했다.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회의에는 나토 소속국 국가를 비롯 한국 윤석열 대통령 및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핵심 동맹국 정상들도 참여한다.

워싱턴DC는 지난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이래 가장 삼엄한 경계태세가 펼쳐지며 테러 및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도로가 봉쇄되고 통행도 금지돼 회의 기간 동안 주민들과 통근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세 번째 워싱턴 방문이지만 별도의 동포 관련 행사는 예정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미국과 유럽의 대러시아 단일대오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나토의 수장국인 미국을 이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세계의 리더 역할을 소화해 낼 수 있느냐”에 전세계

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을 피하지 못하고 이번 회의 기간 동안에도 각종 실수로 구설에 오를 경우, 그에 대한 대선 후보 사퇴논란은 더욱 거세게 타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나토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민주당내 논란은 “사그라 들 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 정치권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이런 가운데, 사흘간의 일정 중 첫날인 이날 오전 여성·평화·안보 라운드 테이블이 첫 테이블을 끝냈다.

오후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연설(방위산업포럼 기조연설)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연설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75주년 기념식에서 나토의 역사를 되짚고, 현 단계 역할과 과제 등을 담은 기념사를 할 예정이다.

10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참가국 정상들의 만찬이 열리며, 11일 나토 회원국 정상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 정

상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의와 나토-우크라이나 정상회의 등이 열린다.

이어 11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회의의 성과를 전세계에 설명한다.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의제는 2년 5개월 가까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동력을 되살리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이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나토 회원국들은 이번에 연간 400억 유로 수준의 군사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서약’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을 포함한 인-태 4개국 정상들까지 참석한 확대 회의에서 정상들은 러시아 방위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지난달 정상회담 계기에 준동맹 수준으로 결속한 북러 관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세용 기자

워싱턴 열대야 현상 ‘심각’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난달까지 열세달 연속 최고기온을 갱신하면서 이는 최근의 일시적인 폭염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온난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전 지구 월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화씨 2.7도(섭씨 1.5도) 더 높았다. 6월 평균기온은 62도(섭씨 16.66도)로 최근 30년 평균보다 1.2도 높았으며 산업화 이전보다는 1.5도 높았다.

섭씨 1.5도는 지난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 의해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 마지노선으로 잡은 온도다. 2015년 당시 기준으로 섭씨 1.5도 이상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계 각국 정상들의 합의에 의해 협약을 맺었으나 이미 그 기준점을 넘어선 것이다.

2015년에 섭씨 1.5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 시기는 빨라야 2035년, 늦으면 2045년이였다. 워싱턴 지역은 최근 20일 넘게 최고기온이 90도를 넘고 있으며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열대야(Tropical Night)는 최저기온이 77도(섭씨 25도) 이상인 밤을 지칭하는 용어다. 원래는 일본의 브로큰 잉글리시 방식의 영어 조어법이 사용돼 미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이 단어를 받아들이고 있다.

여름철 적란운이 빙도가 높아져 야간에 복사냉각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계속 높은 기온을 유지하는 탓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도심의 열섬 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녹지 공간이 적은 도심 지역에서 복사열 현상이 발생해 고온의 에너지를 가두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윤미 기자



“EV 판매량 조작” 현대차 상대 소송

대여차량 코드 코딩해 부풀려
달러가 계약위반 이유 등 제기

현대자동차가 또 피소됐다.

이번에는 전기 자동차 판매량을 조작한 혐의다.

연방 법원 일리노이주 동부 지법에 따르면 네이플턴오로라임포트, 칼루멧시티임포트 등 현대 자동차 딜러들이 현대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딜러들은 현대차 미국법인이 ▶사기 ▶계약 위반 ▶일리노이주 차량 프랜차

이즈 법 등 총 7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장은 지난 5일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고,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현대자동차 측은 대여용으로 분류된 차량에 판매 차량 코드를 코딩해서 판매량을 부풀렸다”며 “이런 식으로 부적절한 차량 코드 입력에 동의한 딜러들에게는 현대자동차 측이 인센티브 등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장열 기자

▶4면 ‘현대차’로 이어집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용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물반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다시 거부권... 경찰 수사발표 하루만

나토회의 위해 하와이 출장 중 재가 한덕수 "위헌성헌충더가중한법안" 야당 "두 번 거부, 자백과같이" 반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넷째)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제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전날 현장지휘관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 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

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국무회의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법안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이날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을 다시 넘겨받은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나"라며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수사 방해, 수사 외압의 몸통인 만큼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김건희씨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일훈·석경민 기자

이재명,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

김두관 "1인 정당 막자" 출사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이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위기 극복과 정당 발전 방안을 담은 8·18 전당대회 출마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 대표 측은 9일 통화에서 "물가가 급등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무능한 정부 대신에 제1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로봇, 기후위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비전 등을 담아 실용주의를 앞세운 '2기 이재명 체제'와 민주당 집권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대항마로는 김두관 전 의원이 나섰다. 김 전 의원은 9일 세종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독주 체제를 막겠다"며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우고 있다"며 "연대를 지향한 김대중 정신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한 노무현 정신도 실종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노·친문' 마케팅을 앞세울 계획인 김 전 의원은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당내에선 어대명(어차피 대표)은 이재명) 기류가 강해 이 전 대표의 재선을 기정사실로 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건희 여자 문자 무시' 논란도 이 전 대표 측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후보가 난립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저 꼴이 난 걸 보니 차라리 일극 체제가 낫잖아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용한 전당대회"라며 흥행 실패를 우려했던 목소리가 여당의 분열로 모두 묻혀 버렸다"고 전했다.



김두관

강보현 기자

윤탄핵 기권한 노무현 사위의 소신

이재명 일극체제로 기운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계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개팔(이재명 극성 지지자)에게 찍힌다"라거나 "반대 목소리 하나로 현실을 바꾸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친명계 지도부 방침과 배치되는 결정을 한 민주당 의원이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광상언(서울 중로·조선) 의원이다.

그는 2일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채택한 채 표결에 부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동의의 건'에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야권 인사에 대한 과도하고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광 의원의 기권이 가결(재석 165명



광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 직후 개표 과정에서 우세한 서울 중로 출구 조사를 확인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중 찬성 160명, 기권 5명)을 막진 못했지만, 정치권은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한동안 기권 사유를 밝히지 않던 광 의원은 표결 사흘이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 기권했다"며 "법사위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마땅히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은 해당 폐북 글에 "당원 뜻을 감히 거역하느냐" "의원이라고 부르기도 싫다" 등의 비난성 댓글을 달았다. 이 전 대표 팬클럽 '재명 이네 마을'에는 8일 "장인(노 전 대통령)께서 왜 위원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궁금합니다"는 글도 올라왔다.

그럼에도 광 의원은 입장문 외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의 전화·문자에 답하지 않은 그는 8일에도 의원회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광 의원실 인사는 "입장문 말고는 추가로 밝힐 게 없다"라고만 했다. 이명을 원한 한 의원은 "자꾸 해명하다 보면 소신이 흐려지다 보니 말을 아끼는 것 아니겠냐"고 관측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 의원과의 면담을 추진 중이다. 당론을 어긴 만큼 과거 금태섭 전 의원처럼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

계파색이 얽은 한 의원은 "실제로 징계가 진행된다면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효성·김정재 기자

워싱턴 날씨 (°F)

11일(목)	91~72	14일(일)	95~73
12일(금)	80~70	15일(월)	97~74
13일(토)	92~73	16일(화)	98~75

7월 10일(수) 95~7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www.davidmarkslaw.com

“VA 석방 불체 미성년자 3만3812명”

SPECIAL STORY

지난 2012년 이후 보호자 없이 홀로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불법체류 미성년자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보건부 산하 난민재정착서비스지원국(ORR)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버지니아에서 풀려난 불법체류 미성년자는 모두 3만3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버지니아 중에서도 페어팩스 카운티에 가장 많은 이들이 정착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국경 감시 기능이 상실돼 다수의 불법이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들은 불체자 사면 등을 내걸고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압박했으나 수포로 돌아가자 자국에 남아있던 미성년 자녀 홀로 국경을 넘도록 부추겼다. 미성년자는 불법 월경을

하더라도 미국 내에 부모 혹은 가디언이 존재할 경우 석방조치 한다는 이민법을 악용한 것이다. 이런 불법체류 미성년자가 버지니아에만 10년새 3만명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들의 부모와 가디언은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판사가 해당 불체 미성년자에 대한 추방 판결 등이 나올 경우 이에 따르겠다는 서약을 하지만, 추방 판결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불법 체류 신분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한다. 이들은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연방법의 보호를 받아 공립학교 등록이 가능하다. 부모없이 단독 유학비자를 받은 미성년자가 공립학교 등록이 불가능한 점과 비교하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연방정부는 이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공립학교에 ESOL 프로그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예산 지원이 크게 줄고 있다. 이들 불법체류

미성년자 중 상당수가 학교 적응에 실패하고 학교를 중퇴하고 있다.

제이슨 마야레스 버지니아 법무부 장관은 “이들이 각종 범죄에 빠져 우리 사회의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방정부는 부모에게 불체 미성년자를 인계하더라도 주정부와 지역정부에 이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지역정부는 자신의 관할지역에 얼마나 많은 불체 미성년자가 방면된채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버지니아 주정부와 모건 그리피스 연방하원의원(공화, 버지니아)은 연방정부가 불체 미성년자를 석방할 경우 반드시 그 정보를 지역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나, 진이민단체는 이같은 법안이 자칫 불체자 차별 정책에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옥재 기자

통일선교사 세계대회 12일 개막

가든교회 창립 30주년 워싱턴북한선교회 8주년 기념

가든교회(담임 한태일 목사) 창립 30주년 및 워싱턴 북한 선교회(이사장 신덕수 목사, 대표회장 김영호 장로) 8주년 기념 통일선교사 세계대회가 오는 12일(금)부터 14일(주일)까지 메릴랜드 콜롬비아 소재 가든교회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11일(목) 오후 6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12일 오후 7시 30분, 가든교회 30주년 기념 예배가 강동완 박사(동아대 교수, 통생통사 유튜브) 설교로 드러진다.

13일(토)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아울러 12일부터 13일 양일간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비전나눔을 주제로 다수의 세미나가 열린다.

강재식, 임현수, 정인홍, 박동훈 목사가 ‘통일선교 내지지역’에 관해 강의하며 신효숙, 오은경, 박진욱, 이상욱 박사가 ‘북한이탈 주민상담 치유사역’을 진행한다.



김양섭, 허남일 목사를 비롯한 하이디 린튼, 심치형 선교사가 ‘특수분야 통일선교(단체)’에 대해, 이외 강동완, 이수봉, 박종수, 정천광, 마민호 박사 등 통일학자들을 초청한 다채로운 세미나가 준비된다.

세미나 등록비는 무료, 참석자들에게 강의 핸드북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세대 통일비전 선교부흥회가 박동훈 목사(빌립보 교회) 인도, 황필남 선교사(몽골리안 처치)의 특별찬양으로 진행되며, 14일(주일) 오후 7시부터 통일선교연합기도의 날 및 통일선교사 위촉예배를 강재식 목사(한국기독교북한선교회 이사장, 광현교회 담임)가 설교한다.

한편 강재식 목사, 박종수 박사가 강연자로 나서는 지역목회자 세미나가 15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워싱턴신학대학에서 열린다.

문의: 703-203-5851 사무총장 노규호 목사

김윤미 기자

명문대 한인 학생, 강변서 숨진 채 발견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학생이 실종 전날 ‘신고식’에 참석했던 체포를 토대로 음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뉴햄프셔주 해노버 경찰국에 따르면 다투머스 대학교 학부생인 원장(20·Won Jang·사진)씨는 지난 7일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코네티컷 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 30분쯤 학교 캠퍼스 인근 다투머스 보트하우스

스에서 열린 비공식 사교모임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다음날 장씨가 참석해야 할 다른 행사에 나타나지 않자 경찰국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해노버 경찰국을 비롯한 소방국, 뉴햄프셔주 어류 및 게임국 등은 공조해 곧바로 장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다. 수색에는 다이버와 드론, 수중카메라

등이 동원됐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장씨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부두 근처에서 약 65피트 떨어진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국은 장씨의 사망 원인을 현재로써 알 수 없지만, 살인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찰스 데니스 해노버 경찰국장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알코올과 관련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번 사건이 신고식(hazing)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 부분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블룸버그, 존스홉킨스의대에 10억 달러 기부

“돈 때문에 꿈 포기말라” 모교에 쾌척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82·사진) 전 뉴욕시장이 모교인 존스홉킨스대에 10억 달러를 기부한다. 의대생들이 비싼 학비 걱정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게 돕겠다는 취지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은 “블룸버그 전 시장의 기부금 덕분에 존스홉킨스대 의대생 상당수는 올가을 학기부터 무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미국은 현재의 사와 간호사, 공중보건전문가 부족이라는 사태에 직면해 있지만, 이 분야를 배우는데 드는 높은 비용이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부를 결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10억 달러를 포함해 블룸버그 전 시장이 모교에 기부한 누적 금액은 45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서유진 기자

동포단체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 실시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2024년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를 비롯해 각종 단체 활동과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한인회관 건립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재외동포단체는 오는 18일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포청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통보한다.

지원 여부 및 지원금 액수는 ▶재외동포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 ▶거주국

재외동포 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 ▶동포사회에 대한 실질적 혜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일회성, 전시성, 진목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양된다. 또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거나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요청액이 15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OMNI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의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친부모 있는데 누군가 고아로 분류”

한인 입양인 배우어스 주장

‘핫도그 먹기 대회’에 출전한 한인 입양인이 입양 과정에서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지난 4일 열린 ‘내이션 핫도그 먹기 대회’에 참가한 매리 배우어스(Mary Bowers)는 한국에 가족들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출전하고 있다고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출생과 관련된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그는 2020년 처음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으며 입양 기관을 통해 가족의 흔적을 찾아보고자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그는 2023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 여러 서류자료를 통해 입양 과정에서 자신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배우어스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양 직전 여러 장소와 시간, 관련 인물들을 추적했었다”며 “당시 친부모가 여전히 있었지만, 누군가의 의도로 고아로 분류됐고

이후 입양 길에 오르게 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핫도그 먹기 대회에 출전하면서 용기를 얻은 그는 DNA 샘플을 만들어 자신의 남동생을 미국 내 멀리 않은 곳에서 찾았다. 그의 동생 제이스는 실제 지난해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배우어스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것이 20년 전에 잃어버린 누나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지속해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관련된 조사 활동을 통해 진상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우어스씨는 “전 세계 입양인 중에 비슷한 의심과 생각을 가진 400여 명과 함께 힘을 모아 한국과 해당 거주국에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에서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배우어스씨는 올해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당당히 10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대회에 참가할 것이며 머지않아 한국을 대표해서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지난 4일 핫도그 먹기 대회에 참가한 매리 배우어스(가운데)가 핫도그가 담긴 접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매리 배우어스 인스타그램]

▶ 1면 ‘현대차’에서 이어집니다

이어 원고 측은 “이러한 코드 입력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딜러들에게는 불이익을 줬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소장에 따르면 코드 입력 행위에 동의한 딜러들은 현대차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차량을 할당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각종 손실에 대한 금액을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이 각 딜러에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의 이러한 행위를 ‘단단계 판매 방식’에 비유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현대자동차는 소수의 딜러에게 재고를 몰아줘서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했다”며 “대중과 투자자들에게는 장밋빛 판매 수치를 보여주면서 시장 주도적이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현대자동차 영업 부문 매니저와의 통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소장에는 이 매니저가 “언론과 한국인들을 위해 숫자를 맞춰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미주법인 측은 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판매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차량 결함, 서비스 센터 문제, 불법 고용, 차량 절도 급증 등으로 잇따라 피소되면서 지난 2018년 4월~2023년 1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총 20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장영기 기자**

LACMA ‘위작 전시’ 사실상 전면 부정

본지 질의 나흘만에 답신보내
종전의 위작 가능성 입장 반복
해당 작품 간행물도 다시 추진
작품 진위 공방 재차 불거질 듯

LA카운티미술관(이하 LACMA) 측이 최근 전시된 한국 유명작가들의 작품이 위작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했다. LACMA 측은 위작 의혹 작품들에 대한 간행물 제작 강행의 사까지 밝혀 예술계에 다시 파문이 일 전망이다.

LACMA 측은 ‘한국의 보물들·Korean Treasures’ 전시회의 위작 논란과 관련한 본지의 이메일 질의에 나흘만인 지난 6일 답신을 보내왔다.

먼저 LACMA 측은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 얻은 과학적 요소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기증자인 체스터 장의 작품들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작품들에 대한 미술사적 중요성과 맥락 등은 추후 온라인과 인쇄물 등을 통해 ‘LACMA 간행물(LACMA publication)’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LACMA 측이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술계 관계자들에게 이 중섭, 박수근 그림 4점을 포함, 조선 시대 회화, 도자 등에 대해 위작 가능성이 인정된 것과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마이클 고반 LACMA 관장은 “계획된 전시도록 발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LACMA 제사카 윤 홍보 디렉터는



전시회가 끝났음에도 8일 LA카운티 뮤지엄 경내에는 아직도 ‘한국의 보물전’ 배너(왼쪽 사진)가 걸려있다. 배너 그림은 체스터 장 박사가 기증하고 전시회에 걸린 김관호 작가의 ‘예술가의 딸(1957)’이다. **김상진 기자**

2021년	체스터 장, 한국의 회화·도자·수리 등 기증
2022년	일명모 당시 국립현대미술관관장, LACMA 수장고에서 확인한 박수근·이중섭 등 그림 위작嫌疑
2024년 2월	LACMA ‘한국의 보물들’ 전시 개막
2월	중앙일보 “박수근·이중섭이 아닌 그림일까?” 등 위작嫌疑 논란 보도
4월	박수근연구소·화랑협회, LACMA에 일러서 발송
5월	LACMA “기증된 한국 예술품, 추가 연구 필요하다” 회신
5월	LA 한국문화원, 김관호는 정미서 발송, LACMA “추가 연구 필요하다”
5월 29일	LACMA, 한국의 예술 전람회 4인 초빙에 간담회, 도록 발간 취소

“이 전시회에서는 ‘도록(catalogue)’ 제작을 계획한 적조차 없다”고 까지 주장했다.

즉, LACMA 관장은 도록 발행을 계획했었다고 언급했으나, 윤 디렉터는 애초에 계획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LACMA 측은 6일 본지에 보내온 답변에서 ▶기증자인 체스터 장 등이 지난 2015년과 2017년 예술자료분석센터(CAMA)에 의뢰한 2건의 과학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이중섭, 박수근의 화풍과 일치하고 ▶작품에 쓰인 재료의 제작 시기는 작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일한 기증자가 기부한 20세기 중반 한국 유화 작품을 조사했던 LACMA 회화보존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작품의 마모, 손상 패턴을 봤을 때 1950~60년대 작품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징이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LACMA 측은 이중섭,

박수근 그림 외에 위작 의혹이 제기된 도자들에 대해서도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LACMA 측은 “일부 작품은 지난 2007년 영국의 옥스포드 인증을 통해 조선시대 18~19세기 작품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열발광분석법을 통해 모든 도자를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작 가능성을 인정했던 간담회 이후 일단락 분위기로 접어들던 가짜 그림 전시 논란은 LACMA 측의 새로운 입장 발표로 또 다른 국면이 접어들게 됐다. 만약 LACMA 측이 향후 자체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간행물 발행을 강행한다면 작품의 진위 여부 공방은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는 LACMA 측 성명 내용과 관련해 추가 인터뷰를 공식 요청했으나 8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영·장수아·김경준 기자**

“한국, 텍사스주 경제 활성화 기여”

한국무역협 텍사스 사절단 초청
주지사 미래 선도할 파트너 강조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초청해 무역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세아제강 이휘령 부회장 등 한국무역협회 회장단과 한미경제협회의(KUSEC) 회원사 및 텍사스 투자 기업인 18명이 참석했다.

텍사스 측에서는 애벗 주지사 내외와 제인 넬슨 텍사스 국무장관 등 사절단원 39명이 참석했다.

윤진식 회장은 환영사에서 “텍사스주는 미국 내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한국 기업들도 철강, 에너지, 반도체, 항공, 우주산업 등 다양

한 산업에 진출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벗 주지사는 “지식기반경제를 바탕으로 성장과 번영을 이뤘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텍사스와 한국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 경제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 지역 간 교역

활성화와 상호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애벗 주지사는 지난 1일 개소한 무역 딜러스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는 ‘개소 선언서’를 윤 회장에게 전달했다.

무역 딜러스 사무소는 뉴욕(1967년), 워싱턴DC(2006년)에 이어 무역의 미국 내 세번째 지부로, 텍사스·조지아·캘리포니아 등 미국 중남부 및 서부 지역을 관할한다.



지난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텍사스 주지사 초청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그레그 애벗(왼쪽) 텍사스 주지사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에게 개소 선언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NEW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스시 식당</p> <p>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버지니아 상가건물</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디시 유명 델리</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Beer & Wine Shop</p> <p>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상가</p> <p>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식당 자리</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사무실</p> <p>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Beer & Wine Shop</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상가</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창고</p> <p>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든, 버지니아</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단독 건물</p> <p>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사무실</p> <p>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콘도</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상가</p> <p>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p>

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주 택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투자 컨설팅

사업 체

주재원 랜딩 서비스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스지

항공 여객 급증... 관련 불만도 늘었다

탑승객 7일 301만여명 최고치
불만 접수 10만건 육박... 12.3% ↑
차별 유형 인종>출신국>성별순



항공 여객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탑승객들의 불만도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 여객이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항공 관련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전국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여객수가 301만3413명으로 역대 하루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종전 기록인 지난달 23일 299만6139명보다는 0.6%, 지난해 동일 264만4639명에 비하면 13.9% 증가한 수치다.

엔데믹과 함께 보복여행 수요 급증으로 여객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TSA 역대 최다 여객수 톱 10일 가운데 8일이 올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휴 4일간 여객수도 1028만 2046명으로 지난해 동기 1017만1032명보다 1.1% 증가를 보였다.

LA국제공항(LAX) 관계자들은 7일 하루 항공 여객 24만 1000명을 포함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기간 동안 200만명 이상이 공항 터미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LAX 최고 운영 및 유지보수 책임자 더그 웹스터는 “국내선 여행이 가을까

지 꾸준히 이어지며 급증하는 캐나다와 중남미를 포함해 국제선 여행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연방교통부(DOT)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 관련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가 지난해 9만6853건으로 전년도보다 12.3% 증가하며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불만 건수 가운데 69.9%인 6만 7661건은 국내 항공사와 관련됐으며 외항사 관련은 25.8%인 2만4991건이었다. 여행사 관련 불만 건수는 3162건으로 3.3%에 불과했다.

2022년 통계와 비교해 보면 국내 항공사 관련 불만 건수는 28.7%가 증가한 반면 외항사와 여행사는 각각 2.9%, 50.3%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국내선 항공사들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장애 관련 불만이 2022년 2098건에서 2685건으로 28.0%, 차별 관련 불만은 176건에서 223건으로 26.7% 각각 증가했다.

차별 유형으로는 인종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출신 국가 22.4%, 성별 9.4%, 민족/혈통과 종교가 각각 8.1%, 피부색 7.6%, 나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된 항공사는 42건을 기록한 아메리칸항공이었으며 프론티어항공(33건), 델타항공(31건), 유나이티드항공(26건), 스피릿항공(15건), 사우스웨스트항공(14건), 젯블루항공(11건), 알래스카항공(8건)이 뒤를 이었다. 인종차별 불만 접수 건이 가장 많은 항공사는 프론티어(19건), 아메리칸(17건), 델타(13건), 유나이티드(13건) 순을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

워싱턴 특파원 칼럼

노턴 온레드



김필규 특파원

미국 수도 워싱턴에는 대부분 교차로에 ‘노턴 온레드’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앞의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려는 취지다. 워싱턴은 2025년까지 모든 교차로를 ‘노턴 온레드’로 바꿀 계획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방의원들이 지역 행정에 끼쳐 끼쳐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지금 워싱턴 사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다. 대선 결과나 의회 의석수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미국이란 왕관에 박힌 보석’ 워싱턴이 새파란 ‘블루스테이트’란 접미 거슬렀던 모양이다.

그동안 워싱턴에선 선거만 하면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시장·시의원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고,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득표율은 92%나 된 반면, 트럼프는 5%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대졸자와 흑인 비율이 높다 보니 당연한 결과다.

코로나19에 소독제 먹으면 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과학자들이 좋아할 리 없고, 지저분한 사생활로 기소된 뒤 “나도당신들처럼 차별받고 있다”는 말을 흑인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워싱턴에서 외면받는 이유를, 이곳에 깊게 뿌리 내린 ‘딥스테이트(Deep State)’ 때

문이라고 봤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보수 정책에 번번이 방해하는 공무원 집단을 ‘딥스테이트’라고 규정했다. 특히 납세자 돈을 받으면서도 좌파적 방송을 하는 공영방송 직원도 문제라고 했다. 따라서 재집권 시 연방 공무원 고위직 4000명을 바꾸고,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5만 명을 충성파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친트럼프 군대’를 구축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는 자신의 집권 말기, 실제 공무원들의 해고를 쉽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되돌린 바 있다.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권’까지 인정받으면서 이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다.

하지만 이렇다고 트럼프가 정말 워싱턴을 ‘레드스테이트’로 만들 수 있을진 의문이다. 대형 참사의 책임을 좌파 방송의 공작이란 음모론으로 돌리고, 주변은 쓴소리하는 사람 대신 충성파로만 채운다고 지지율에 도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미국 밖에서도 확인이 됐다.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게 해준다고, 유권자를 마음까지 끈질기게 서진 않는 법이다.

국무부 대북정책 전담 최고위 당국자 사임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전담하는 최고위 관리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박(사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지난 주까지 근무하고 국무부



를 떠났으며, 후임자 인선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박 대북고위관리는 미국의 대북 협상 수석 대표로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일, 한미 간의

대북 공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왔다.

북한의 연쇄 도발과 북극 군사협력 강화 기류 속에 바이든 행정부 최고위 대북 외교 담당자가 사임함에 따라 후임 인사가 조속히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미, 한미일간 대북 대응 조율에 차질이 우려된다.

결제 간소화... 타깃, 15일부터 체크 안받아

대형 소매업체 타깃이 다음주부터 체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는 현금, 데빗이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한다.

8일 CNBC는 오는 15일부터 타깃에서 체크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타깃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현금, 애플페이, SNAP/EBT 전

자카드, 데빗·크레딧카드,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 등을 결제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 타깃은 “체크 사용자가 많지 않고 결제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체크를 결제 수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깃은 셀프계산대 이용 가능 물품 수를 10개 이하로 제한하는 등 결제 절차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재선 기자

㉠ 중앙일보 구독신청 : 703-281-9660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Baltimore
(301) 962-8300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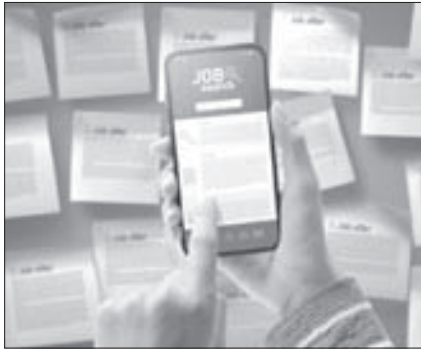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아라조)빌딩
웨일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을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채용 빌미 신분도용 사기 118% 급증

AI로 가짜 구인 공고 만들어
돈 요구하고 개인정보 빼내
회사 유무 반드시 확인해야



취업 관련 사기가 폭증하고 있어서 구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취업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빼내 신분도용 사기에 악용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CNBC는 8일 비영리단체 신분도용 리소스센터(ITRC)의 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 취업을 빌미로 한 신분도용 사기가 전년보다 118%나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취업 사기는 대부분 구직자가 많이 찾는 링크드인 등의 플랫폼에 가짜로 구인공고를 내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를 본 지원자들에게 기업 채용담당자인 것처럼 속여서 메시지를 보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빼낸다. 채용과 관련한 서류 작성 목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라고 하거나 사회보장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적어 내

전했다. 로버트 로드리케스 뉴욕주 재무장관은 “사기꾼들은 좋은 직업을 약속하면서 접근하지만 결국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돈”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사기가 신분도용사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로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 에바 벨라스케스 ITRC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의 발달과 재택근무 트렌드 때문에 취업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의 도움을 받으면 진짜와 구별이 힘든 채용공고를 만들 수 있고 구직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또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속는다는 것이다.

ITRC는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일반화된 것도 취업 사기가 활개 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채용과정은 대면 면접이 있지만, 취업 사기의 경우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재택근무 등의 새로운 업무환경 때문에 대면 면접이 없어도 채용과정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부주의는 결국 사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벨라스케스 ITRC CEO는 “대부분의 회사는 온라인으로도 반드시 대면 면접을 진행하며 디지털 메시지로만 채용이 결정되는 된다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사전 조사하기 ▶전화번호와 이름 등 제한된 개인정보만 제공하기 ▶채용담당자뿐만 아니라 회사와 직접 연락 취하기 등을 통해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취업 관련해 비용이 든다면 송금을 원하거나 수령 금액을 넘는 금액의 체크를 발송해 차액만큼 송금을 요구하는 것 모두 빈번한 사기 유형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했다. **조원희 기자**

브리프

엔비디아투자등급 '이례적' 하락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에서 이례적으로 투자 등급을 내리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6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월가의 시장분석업체인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렸다.

이 업체 분석가 피에르 페라구는 목표 주가는 현재보다 8% 높은 수준인 135달러로 제시하면서도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했다.

그는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해 약 240%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156% 급등하며 완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주가가 그동안 충분히 상승했다고 봤다.

이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2025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좋아진다는 낙관적인 상황에서 실현될 것”이라며 “아직 이 시나리오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투자 등급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다.

스카이댄스, 파라마운트 합병 합의

할리우드 제작사 스카이댄스와 파라마운트 글로벌이 합병에 합의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파라마운트 지배 주주인 샐리 레드스톤 이사회 의장은 가족의 지배지분을 매각해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CNBC는 드라이브인 영화관을 파라마운트픽처스 CBS방송네트워크, 코미디센트럴, 니켈로디언, MTV 등 미디어 제국으로 키운 레드스톤가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스카이댄스는 영화 ‘터미네이터’, ‘미션 임파서블’, ‘탑건: 매버릭’ 등을 만든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사다. 매체는 이번 거래로 오라클 공동창업자 래리 엘리슨의 아들이자 스카이댄스를 설립한 영화제작자 데이비드 엘리슨이 할리우드 권력층으로 부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CNBC는 파라마운트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수익을 내기 전 전 통적인 TV 부문이 빠르게 쇠퇴하면서 2019년 이후 회사 가치가 170억 달러가량 낮아졌다고 말했다.

안티에이징 화장품 10대에 유해

SNS 영향 청소년 사용 늘어
피부 얇게 만들고 발진 유발

‘안티에이징’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이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티에이징’ 성분이 청소년 피부에는 되레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안티에이징 성분인 레티놀, 글리콜산 등은 피부를 얇게 만들고 심한 자극도 유발해 피부 발진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부 청소년은 되레 얇은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사춘기 전후의 어린 청소년은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사용하면 기미, 화상, 아토피성 습진 질환이 악화 또는 재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의 ‘뷰티 붐’ 때문에 10대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들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에 대한 경고 및 사용 연령 제한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의회는 안티에이징 화장품에 어린이 사용에 대한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거나 부모 동의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하은 기자**

TSMC 시총 1조달러 ‘터치’

최대 파운드리 대만 업체
뉴욕 증시 시가총액 7위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가 8일 뉴욕 증시에서 장중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터치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TSMC 주가는

장 초반 4.8% 급등한 192.8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시총도 1조160억 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었다.

다만, 이후 상승 폭이 줄어들며 주가는 1.43% 오른 186.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총도 9678억 달러로 1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이날 주가 상승은 전날 모건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9%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TSMC는 내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TSMC가 연간 매출 추정치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TSMC가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목표 주가를 올렸다.

파월 “긴축정책 너무 늦게·조금 완화하면 경제활동·고용 약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하락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더 나와야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월 의장은 9일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서면 보고서에서 “올해 초반에 2% 물가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진했지만 가장 최근의 월간 지표는 일반적인 수준의 진전이 더(modest further progress) 이뤄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긍정적인 지표가 더 나타나면 물가가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낮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추려면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만한 경제 지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파월 의장은 긴축 정책을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완화할 경우 물가 하락세가 멈추거나 다시 상승할 수 있다면 서도 지난 2년간 이뤄진 물가 하락과 고용시장 완화를 고려하면 “우리가 직

면한 위험은 높은 물가뿐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조금 완화할 경우 경제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시장 여건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하지만 과열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의심은 파월 의장이 최근 물가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고금리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하락세에 들어서고 고용시장이 약화하는 징후를 보이면서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민주, '바이든 후보사퇴 내홍' 중대 갈림길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미국 민주당의 내홍이 9일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민주당 안팎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측은 완주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오전 TV 토론 이후 첫 의원총회를 가졌고, 상원 의원들도 오찬모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숙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선 완주의지를 강조하고 자신에 대한 후보직 사퇴 요구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만 이롭게 한다면서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으나, 지난달 말 대선 후보 첫 TV토론 이후 깊어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려와 회의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다만 비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필요성을 거론했던 일부 하원의원이 입장을 바꾸는 등 '후보 사퇴론의 진양'적인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 표명이 잇따르면서 후보직 사퇴 요구의 확산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전국위 빌딩에서 비공개로 전체 의원총회를 진행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회의장 내에서의 발언 내용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반입도 금지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지난달 27일 토론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정례 의총은 대체로 의원들의 자유 발언을 듣는 자리였다고 리처드 닐 하원의원(메사추세츠)은 말했다.

다른 참석 의원들도 의총의 세부 내용은 함구하면서 회의를 '청취 세션', '가족 대화'로 묘사했는데 이는 '가시 돌진 내부 논의'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문구라고 NYT는 전했다.

의총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문제를 놓고 전체적인 총의가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브 코윈 하원의원(테네시)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같은 페이지에 있느냐(같은 입장이냐는 의미)'는 질문에 "우리는 심지어 같은 책에 있지도 않



다"고 말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는 마이크 퀴글리 하원 의원(일리노이)은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길 수 없으며 다른 의원들도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러나 제리 내들러 하원의원(뉴욕)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들러 의원은 지난 7일 비공개로 진행된 하원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회의

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필요성을 거론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나아가 흑인 의원 모임, 히스패닉 의원 모임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등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유지에 대한 지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원 흑인 의원 모임 의장인 스티븐 호스퍼드 하원의원(네바다)은 전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며 네바다 유권자를 포함해 전국 수백만 명의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원 내 대표적 진보 인사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뉴욕)도 전날 밤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의지를 반복해서 밝힌 것을 언급한 뒤 "나는 그를 지지하며 그 문제(후보 교체론)는 종결됐다"고 말했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전날 밤 "나는 TV토론 다음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내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213명 중 6명이 전

날까지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은 대체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NBC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서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수행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밀어내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인상"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하원에 이어 상원의원들도 이날 정례 오찬 회의를 열었다.

상원에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필요성을 표명한 의원은 없으나 하원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은 상태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당 인사들과 접촉하고 내홍 사태 수습을 계속할 예정이다.

트럼프 "바이든, 자존심 강해...대선 레이스 남을 것"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상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로 인한 민주당 내부의 후보 사퇴 압박에도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바이든)는 자존심이 강하고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는

다.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게 그가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흥미롭게도 그는 대의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많은 힘을 지녔다"며 "그가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하지 않는 한 그들(민주당)은 수정헌법 25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에는 부통령과 내각 구성원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이 이를 추진해왔

다는 징후는 없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벌인 첫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힘없는 권 목소리로 말을 자주 더듬고 맥락에서 벗어난 발언을 한 이후 민주당 일각의 거센 후보 사퇴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최근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 발언과는 상반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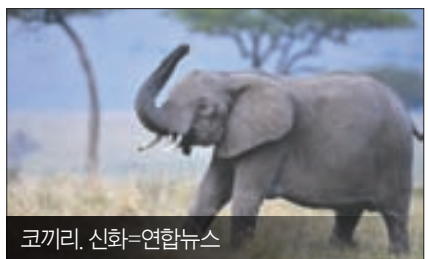
그는 지난 3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비스트가 입수해 공개한 동영상에서 "그는 (대선) 레이스를 그만두고 있다. 내가 그를 나가게 했다"고 말했다.

사진 찍다 코끼리에 밟혔다...남아공서 사파리 관광객 참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스페인 관광객이 코끼리에 밟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9일 현지 일간 더시티즌에 따르면 지난 7일 요하네스버그에서 서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노스웨스트주 필라네스버그 국립공원에서 '게임 드라이브'(사파리)를 하던 43세 스페인 남성 관광객이 코끼리에게 짓밟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남성은 약혼녀, 다른 여성 2명과 공원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개인 차량으로 사파리를 하던 중 코끼리 무리를 보고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 사진을 찍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끼리, 신화-연합뉴스

공원 관계자는 "관광객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흥분한 코끼리의 우두머리가 공격했다"며 "어린 코끼리가 어린 코끼리를 보호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끼리가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지 깨닫지 못하는 관광객이 많다"며 "차에서 내려 야생동물에게 접근해 셀카를 찍기

나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위험이나 영역 침입으로 인식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올해 잠비아에선 코끼리가 두 차례 사람을 공격해 2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엔 필라네스버그 국립공원에서 사파리 전용 트럭을 탄 관광객이 코끼리로부터 공격받는 동영상도 소셜미디어(SNS)에 퍼지기도 했다.

필라네스버그 국립공원은 야생동물 보호구역 방문객에게 창문을 닫고 차에서 내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영혜 기자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 사막서 한겨울에 꽃이 활짝 피어났다. 6일 칠레 아타카마사막에 꽃이 피어 있다.

곽태우 변호사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을 도왔습니다.

또한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약력

- 버지니아로 1980년 이민
-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이스트만), 동대학원
- 시카고 게렛신학대학원
- 시애틀대학 로스쿨 법학박사(JD)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음악감독(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전)
- 버지니아,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

K 로펌

K LAW FIRM PLLC
www.alexkwakesq.com

571.405.6540

alexkwakesq@gmail.com

7799 Leesburg Pike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플라이츠 “트럼프, 백악관 복귀하면 김정은·푸틴 때놓을 것”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

한국은 ‘트럼프 최측근’ 인터뷰
“북·러, 밀착 지속 어려운 전략결혼
윤정부와 북·중문제 더 큰 성과 기대”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김정은과 푸틴을 때놓겠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62·사진)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 부소장은 방한 중인 지난 8일 중앙일보와 만났다. 그는 지금의 북·러 간 밀착을 지속하기 어려운 ‘전략결혼’에 비유하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북·러가 무기를 주고받을 이유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플라이츠 부소장은 중앙정보국(CIA) 출신으로 국방정보국(DIA), 국무부, 하원 정보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북·러 군사 협력으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미국의 핵우산 강화”라며 “지난해 4월 한·미 ‘워싱턴 선언’과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미국과 협상할 경우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요구했던 제재 완화 그 이상을 바랄 것이라는



러, 우크라이나 어린이병원 공습 - 안보리 긴급소집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지난 8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수도 키이우 오흐마르디트 어린이병원에서 아이를 업은 채 대피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어린이병원 공습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AFP=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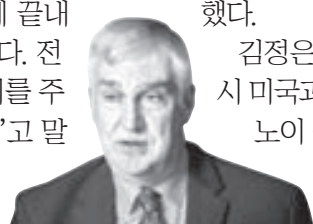
지적에 대해서는 “적어도 북한과 대화를 위한 트럼프 측의 전제조건은 없다”며 “김정은도 트럼프와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유별난(unusual) 요

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했고, 국제사회가 미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방탄 트

럼프’(Trump-proof)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방탄 트럼프’라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는다. 유럽 등에서 트럼프 귀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는데, 실상은 트럼프 재임 때 세계가 더 안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이른바 ‘트럼프 독트린’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외교’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의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했다. 미국의 주요 국가 안보 위협은 ‘기후 변화’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 문제에 훨씬 진중한 트럼프와 함께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이민자 추방, 동맹국에 방위투자 의무화... 미 공화당 정강 바꿨다

‘미국 우선’ 트럼프 공약 다 반영
“트럼프 사당화 완성됐다” 평가
기존의 한국·한반도 언급은 빠져

미국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당 노선을 집약한 새 정강을 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국경 봉쇄 등 강경한 이민 정책, 수입품 보편 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반영돼 ‘트럼프 사당(私黨)화’가 완성됐다는 평가 나온다.

특히 새 정강엔 “동맹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해 트럼프 재집권 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정강에 명시됐던 한국·한반도 관련 언급은 빠져있다.

이날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산하 정강정책위가 채택한 새 정강의 제목은 ‘2024 공화당 정강-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다. 트럼프 전역의 슬로건인 마가(MAGA)를 정강의 타이틀

로 사용했다. 16쪽 분량의 정강서문 제목은 ‘미국 우선-상식’으로의 복귀’였다. 서문은 11월 대선과 상·하원 선거 승리 시 추진할 대내외 정책으로 ▶국경 봉쇄 ▶미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 ▶인플레이션 종식 ▶지배적 에너지 생산국으로의 전환 ▶근로자 대폭 감세 ▶미 전역 ‘아이언 돐’ 방어막 구축 ▶군 현대화 ▶전기차 의무화 취소 ▶친 하마스 급진주의자 추방 등 20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외교 정책을 담은 제10장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한 외교 정책은 미국의 안전을 떨어뜨리고 전 세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맹국들이 공동 방위투자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 편에서 중동의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동맹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건 이스라엘이 유일하다. 공화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66쪽 분량의 정강에

서는 ‘Korea’가 총 6번 언급(북한 포함)됐다. 새 정강에선 한국·한반도에 대한 언급이 빠진 채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들과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만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공화당 정강은 2016년 강령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트럼프가 공화당 노선을 확실하게 접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화당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대선 승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몸던져 아기 감싸고, 바늘꽃고 대피... 키이우 아동병원에 미사일

8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어린이병원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정통으로 꽂히면서 그 일대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어린 환자와 곁에 질린 보호자들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일 600명이 넘는 환자가 드나드는 키이우의 오흐마르디트 어린이병원에서는 진료와 수술 준비가 한창이던 오전 10시께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

일부 환자들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병원 밖으로 황급히 대피했지만, 치료 중이라 건물 밖으로 이동이 어려웠던 다른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병원 안에 남아있거나 비교적 벽이 두꺼운 식당 등

으로 옮겨졌다. 신경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안드리 마카레프스카(9)와 그 엄마 올레나 역시 미사일 공격이 날아들 당시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 머물고 있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사이렌이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의 공대지 순환미사일 KH-101이 병원 건물 위로 날아들었고, 올레나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위로 몸을 던졌다고 말했다.

올레나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큰 폭발음이 들렸고 나와 내 남편은 둘 다 안드리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며 “창문이 모두 깨졌고, 우리는 공격이 또 발생하거나 잔해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베개로 아들

을 감쌌다”고 말했다. 이날 공격으로 독성학 병동과 몇몇 수술실을 비롯해 병원 2층 건물 일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에 따르면 젊은 의사 1명을 포함해 최소 2명이 숨졌으며 16명이 다쳤다.

부상자 16명 중 7명은 어린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물 잔해 속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도 진행 중이다.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날 암 병동 환자들을 비롯해 미처 대피소를 찾지 못한 어린 환자들은 몸에 링거 바늘을 꽂은 채 잔해와 먼지가 나뿜구는 길 위에 덩그러니 앉아있어야 했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공습 당시 병원에서 태어난 지 두 달



러시아 공습 받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어린이병원

된 신생아와 있던 엄마 스비틀라나 크라브첸코(33)는 로이터 통신에 아들을 잔해와 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옷으로 덮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아들과 함께 대피소로 몸을 피한 크라브첸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서웠고, 숨을 쉴 수 없었다”며 “아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옷으로 그를 덮려고 했다”고 말했다.

공습 당시 독성학 병동에 있던 간호

사 마리아 솔로센코는 가디언에 공습 사이렌이 울리자 투석 치료를 받고 있던 18개월 가량의 어린 아이들의 치료를 급하게 중단하고 건물 창문을 통해 이들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다른 병동에서 환자들을 대피시킨 간호사 타나 랍시나는 가디언에 “완전한 혼돈이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서 대피소에서 울고 있었다”며 “어떤 말로도 묘사하기가 어렵다. 정말 끔찍했고, 아직도 몸이 떨린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날 수색 작업 진행 중에도 여러 차례 공습 사이렌이 울려 구조대원들이 인근으로 대피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날 러시아는 오흐마르디트 병원 외에도 키이우 시내에 있는 다른 산부인과 병원을 비롯해 시내 곳곳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홈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경력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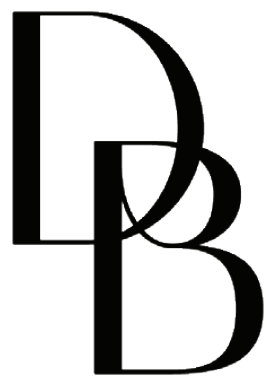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DONNA BELLA

LASER MEDSPA®
WWW.DONNABELLALASER.COM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FDA 승인을 받은 최첨단 의료 장비로 당신의 10년을 돌려 드립니다.



머리→헤어 복원
Laser Hair Restoration

얼굴→피부 레이저 치료 & 기미 제거
Fractional CO2 Laser, Laser Melasma Treatment

질→질 회춘술
Non Surgical Laser Vaginal Rejuvenation
질 건조증
Vaginal Dryness
요실금
Urinary Incontinence

눈썹→눈썹 문신 제거
Eyebrow Tattoo Laser Removal

쥐젖 / 피부점 / 사마귀
Skin Tag / Skin Mole / Wart

복부→바디 콘투어링 & 체중 감량 프로그램
Laser Body Contouring & Weight Loss Program

다리 & 겨드랑이→레이저 헤어 제모
Laser Hair Removal

다리→노출 혈관 제거
Non Surgical Laser Vascular Treatments

발→발톱 무좀 치료
Laser Toenail Fungus Treatment

Open Special H. Carbon Toning
~~\$350~~ → **\$99**

- REDUCING THE SIGNS OF PREMATURE AGING
- ERASING OR FADING YELLOW/BROWN PIGMENTATION
- SHRINKING SCARS (MUST BE YOUNG SCARS) OF A SMALL DIAMETER

- REDUCING FINE LINES AND WRINKLES
- IMPROVING SKIN INTEGRITY AND RADIANCE
- STIMULATING COLLAGEN GROWTH FOR FIRMER, PLUMPER SKIN
- REDUCING OILY SKIN OR EXFOLIATING DRY SKIN

첫 상담 무료

Dr. 황지연
Jiyon Hwang-Ki, MD

BOARD CERTIFIED,
DIPLOMATE OF TH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MD 락빌
T. 301.417.4975
15200 Shady Grove Rd. Suite 108
Rockville, MD 20850
Mon ~ Fri: 8:00am ~ 4:3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애쉬번
T. 703.443.4713
21785 Filigree Ct. Suite 206
Ashburn, VA 20147
Mon ~ Fri: 9:30am ~ 6:0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페어팩스
OPENING JULY 2024
13135 Lee Jackson Hwy. Suite 205
Chantilly, VA 22033
***직원 모집: Esthetician, Receptionist, Manager 그리고 NP or PA**

여당 “법적근거 없는 청문회, 증인 출석의무 없어”

대통령 장모·이종섭 등 39명 채택 여당 “법사위장 직권남용 고발 검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모씨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19일에는 채 상병 사건 외 압 의혹을, 26일에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모두 39명이 채택됐다. 김 여사 모녀와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인물인 최

재영 목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지난달 20일 국회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전쟁 위기 조성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어 사흘 만에 국회법상 소관 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책

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청원 쟁점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률 위반 등의 의혹이 있는 사안”이라며 “법사위에서도 반드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진태 의원도 “13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의 청원을 어떤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나. 그런 명분과 논리는 법 기술자들이 하는 애드리브에 불과하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청원 내용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내용이 안 맞는 청원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절차를 우회해 조사하냐”라고 따졌다. 과규택 의원은 “국회법상 수사 진행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게 돼 있는데, 청원 사유 중 세 가지가 수사나 재판 등에 간섭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요구하는 청원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했는데, 안건 상정에 북한 답화가 참고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회의를 진행하던 정 위원장이 “토론을 충분히 했다”며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중단시킬 자격이 없다.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을 순차적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라며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서라면 정치적 명분이나 도의, 국가 안위도 포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등의 증인 출석과 관련해선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 위원장 측은 “채택된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나 “한 문자 무시, 정치적 미숙” 한 “여사 사과 뜻 없었다”

(나경원) (한동훈)

첫 TV토론회서 ‘김건희 문자’ 격돌 윤상현 “여사 사과 유도하는 게 정치” 원희룡 “정책·비전만 초점” 말 아껴 ‘사과했다면 총선 달라졌나’ 질문엔 네 후보 모두 ‘그렇다’ 팻말 들어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의 첫 TV토론회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렸다. 이날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왼쪽부터)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 대표 후보 방송토론회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2주 앞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총 6차례 진행된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2주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도 무반응)’ 논란을 놓고 격돌했다. 토론은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9일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동안 진행됐다.

‘읽씹’ 논란을 적극적으로 부각한 건 나경원 후보였다. 나 후보는 “한 후보는 여사 문자가 사과하려는 뜻이 아니라 고 했데, 원문을 보면 사과 의사가 명백해 보인다”며 “이 부분은 당사자(김 여사) 의사가 가장 중요하데, 소통을 단절한 건 정치적 판단 미숙”이라고 공격했다. 한 후보는 “여사의 사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나 후보가 “대통령실과

당사자(김 여사) 입장이 다르지 않았나”라고 묻자, 한 후보는 “사과하지 않겠단 입장이 명백해 초유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이어진 것”이라며 “이걸 제가 다 공개하면 정부가 위협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여

사는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가 “대통령 부인 문제가 있었다면, 대통령실이 아닌 대통령과 직접 소통해야 않냐”라고 반문하자, 한 후보

는 “대통령과 이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다”며 “대통령은 사과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고, 여사도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 제가 그걸 정확하게 알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가 “김 여사에게 직접 물어봐서 사과를 유도하는 게 정치”라고 꼬집자 한 후보는 “저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이 있다. 세 분은 뭐 하셨냐”라고 맞받았다. “김사 시절 김 여사와 카카오톡으로 소통했는데, 비대위원장이니까 안 된다는 거냐”는 윤 후보 지적에는 “카카오톡은 (여사가 아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했던 소통”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 후보를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원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읽씹’ 논란 등 정치적 쟁점을 거론하지 않았다. 원 후보는 “당 선관위로부터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하라는 간곡한 권고를 받았다”며 “정책·비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7일 원 후보가 “한 후보는 가족·인척과 공천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근 신경전이 벌어

졌다. 한 후보가 “거짓말에 대해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원 후보는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상호간에 다루는 모습은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초반 ‘지난 총선에서 김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까’라는 사회적 질문에 네 후보 모두 ‘O’ 팻말을 들었지만, 설명은 엇갈렸다. 한 후보는 “여러 사안에서 민심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중 하나가 이 사안”이라며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나 후보는 “김 여사의 사과는 후보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한마디”라며 “여사 문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모두 허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원 후보와 윤 후보가 ‘O’ 팻말을, 나 후보와 한 후보는 ‘X’ 팻말을 들었다. 원 후보는 “대통령 지지가 매우 낮지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원팀을 전제로 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대통령과 차별화해서 본인만 빛나겠다고 해서 결국 둘 다 망한다”고 했다.

손국화·이창훈 기자

“청년 떠난 지방, 서울 대체할 만한 양질 일자리 만들어야”

청년 엑소더스 악순환 막으려면 수도권과 지방(비수도권) 사이 소비·생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 양극화’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청년

(15~34세) 인구는 꾸준히 감소 추세다. 부산에선 2023년 청년 인구가 2013년 대비 25% 줄었고, 대구와 광주에서도 각각 22%·18% 감소했다. 울산에서는 27%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임금·성장률·문화·의료 등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 유

출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이 떠나 쇠퇴한 지방에선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각종 인프라가 줄어드는 등 지역 경제 생태계가 쪼그라든다. 이는 다시 ‘청년 엑소더스’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이 한 국의 30대 기업 중 수도권 기업 비중은

95.5%에 이른다. 지식서비스와 정보기술(IT) 산업 위주로 구조가 변화하면,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쇠퇴하는 지방과 과밀화된 수도권은 그 자체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은 경쟁 격화로 결혼·출생이 위축되고, 지방은 청년층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정착하

기 망설여지는 환경이라서다.

전문가는 지방에 소수의 거점 도시를 육성해 서울을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문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택 특별공급, 육아·보육 지원책 등을 마련해 청년 인제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효정·이미지 기자**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온라인 예약

SELFOTo
STUDIOS

www.Selfotostudios.com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콘도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310,000

방1, 화1, 차고1, 2007년산 엘리베이터, Large Fitness, 세탁기&드라이어 In Unit, 24/7 Concierge SVC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1,200,000

방4, 화3.5, 차고2, 정원이 아름다운 코너집, 리모델링 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경울 발언 놓고 윤·한 격한 언쟁... 그 뒤 김건희 사과 문자

(마리 앙투아네트)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이 '윤·한 갈등'을 재조명하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다섯 차례 문자를 보냈고, 이에 한동훈 후보가 답하지 않은 바로 그 시점에 '윤·한 갈등'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첫 메시지에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윤·한 갈등이 그 전부터 잠복해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비대위원들 돌출발언에 용산 불쾌감

9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갈등의 시발점은 지난해 12월 19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의 발언이었다. 장관 사퇴를 앞두고 있던 그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음 날 일부 언론은 한 후보가 '총선 후 특검'이란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려던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에 불편함을 드러냈다고 한다. 다만 이후 한 후보는 '김 여사 특검법 조건부 수용 입장이나'는 물음에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반응했다. 한 후보는 비대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해 12월 26일 "당과 충분히 논의된 내용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그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27일), "특검 거부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하다"(1월 5일)며 김 여사 특검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비대위원의 돌출 발언이 변수였다. 1월 8일 김경울 비대위원

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모두 다 알지만 말을 못할 뿐"이라고 말했다. 1월 13일엔 박은식 비대위원도 "김 여사 리스크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 같은 발언에 윤 대통령은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이런 기류를 전하자, 한 후보는 '내부적으로 잘 대화하겠다. 다만 징계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양측의 긴장감이 높아지자 김 여사는 1월 15일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며 "한 번만 '브이(대통령)'와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틀 뒤(1월 17일)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은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김경울 비대위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를 프랑스로 초청할 마리아 앙투아네트에 빗대며 사과를 촉구했다. 공교롭게도 한 후보는 같은 날 김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를 출마'를 전격 발표했다.

여권 핵심 인사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의 발언 이후 윤 대통령과 한 후보는 전화로 언쟁을 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통합했던 상처가 다시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날(1월 18일) 한 후보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과로 해결된다면 천만 번 사과하고 싶다"는 19일 김 여사의 발신 문자는 이런 상황에서 보내진 것

윤·한 갈등 막전막후	
2023년	
12월 19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건희 특검 관련 "법 앞 예외 없다"
20일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 시사' 보도에 윤·한 갈등 촉발
25일	당·정·대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 불가"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 "김건희 특검은 악법"
2024년	
1월 5일	윤, 쌍특검(김건희-대장동)법 거부권 행사
7일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8일	김경울 비대위원 "김건희 리스크 정면 대응해야"
10일	한동훈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필요"
13일	박은식 비대위원 "김건희 리스크, 윤이 직접 나서야"
15일	김 여사 "한 번만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까요", 1·2차 문자 발신
17일	김경울,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어 김 여사 사과 촉구 이후 윤·한 격한 언쟁
18일	한동훈 "명품백 논란, 국민 걱정할 부분 있다"
19일	김 여사 3차 문자 "사과해서 해결되면 천만 번만 사과"
2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동훈 만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23일	윤·한, 서천 화재현장서 갈등 임시 봉합. 김 여사 4차 문자 "한동훈은 생각 가리는 여정 겪어온 동지, 진심으로 잘못 뉘우쳐"
25일	김 여사 5차(마지막) 문자 "윤 역정으로 마음 상하셨을 것. 두 분 식사하시며 오해 푸셨으면"
29일	윤·한 '2시간37분' 오찬 회동

이다. 김 여사는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다"며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다. 이 문자를 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친윤 측은 "명백하게 사과 의사를 밝힌 것"이라지만, 한 후보 측은 "사과 취지가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한 후보 측이 주목하는 건 19일 문자

중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 "대선 정국에서 허위 기제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포인트 빠졌다"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과에 반대하는 김 여사와 가까운 일부 대통령실 참모의 기류를 한 후보 측도 이미 인지했다는 것이다.

1월 21일 당시 이관섭 비서실장은 윤 재옥 원내대표가 배석한 3차 회동에서 한 후보에게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고, 한 후보는 거절했다.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며 공멸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과 한 후보는 이틀 뒤(1월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재회했다. 김 여사는 이날 "(한 후보는) 함께 지금까지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 온 동지였다"며 "김경울 회계사의 극단적 위당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년간 꼬인 감정 못 풀고 신경전만"

앞선 네 차례 문자에 답이 없자 김 여사는 1월 25일 마지막 문자를 발신한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합니다"는 내용이였다. 김 여사는 이어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만간 두 분이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고 덧붙혔다. 윤 대통령과 한 후보는 같은 달 29일 대통령실에서 2시간37분간 오찬 회동했다.

하지만 5개월 전 김 여사가 보낸 문자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강타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반년 동안 꼬일 대로 꼬인 감정을 풀지 못하고 내부 신경전만 벌인 게 아닌가"라며 "전당대회가 끝난 뒤라도 이 문제의 매듭은 어떤 식으로든 풀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정·윤지원 기자

윤 대통령 "이승만 건국에 하와이 동포들 기여, 한국 틀 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하와이의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넋을 기렸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묘지 헌화대 앞에서 고개 숙여 참배했고, 미군은 예포 21발로 예우했다.

헌화를 마친 윤 대통령 부부는 한국 전 참전 미군 6명과 인사한 데 이어 고(故) 벤자민 윌슨 소령의 묘를 찾았다. 윌슨 소령은 1951년 6월 5일 강원도 화천 전투에서 뛰어난 공적을 올려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다. 이날 추모식엔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부부와 폴 라케카라 주한미군사령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함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방문 첫 일정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하와이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사화산 분화구에 있어 움푹한 그릇(Punch Bowl)을 닮아 '펀치볼 국립묘지' 혹은 현지어로 푸오와니아(희생의 언덕)라 불리는 태평양 국립묘지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산화한 6만3000여 명의 미군 유해가 안장돼 있다. 그중 1만여명은 낮은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이다. 한·

미 동맹의 상징적 장소로, 윤 대통령에 앞서 이승만·이명박·문재인 전 대통령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엔 하와이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 협력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며 "정부는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국제사회가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건국에 하와이 동포들이 물질적·정신적으로 기여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와 시

장경제라는 국가의 기틀이 세워졌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엔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고 파파로 사령관 등으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다. 한국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은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29년 만이다. 이후 워싱턴 DC로 이동해 10~11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일본을 포함해 10개국 이상의 국가와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과의 양자 회담은 10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준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북·러 군사 협력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호놀룰루=박대인 기자

건물 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3,600 SF Warehouse / Industrial \$1.35M

VA Mosaic District에 위치한 최상의 로케이션, Drive-In, 천장 18 FT, 495에서 1마일, SBA 용자가능, 추천업종: 창고, 도매업, 컨트랙터 소품, 실내 골프장, 커머셜주방, 리테일

참고 | 샵센터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샵센터를 직접 투자 / 관리하고
Marcus & Millichap
업무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미셸신 케빈신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김범수 첫 소환... 카카오 미래시계도 '올스톱'

“물 떠놓고 달 보며 기도만 하는 심정이다.”(카카오 계열사 임원)
“리스크·채신 애긴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엔 미래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사업이든, 투자든 뭘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다.”(카카오 본사 직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채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9일, 카카오의 미래에 관해 묻자 돌아온 답들이다. 지난해 2월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반, 지속된 수사 와중에도 비상경영과 채신 노력을 거듭했지만 여전히 카카오의 미래로 향하는 시계는 멈춰있는 상태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의 첫 조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른 오전 남부지검에 비공개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이미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남은 건 김범수 위원장이 배 전 대표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

이번 수사는 2022년 10월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건과 함께, 카카오의 비상경영 사태를 부른 결정타가 됐다. 이후 카카오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쪼개기 상장, ‘주식 먹튀’ 등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지인을 주요 경영진으로 기용한 이른바 ‘브라더십(brotherhood)’ 경영, 기술 기업으로서의 정체성 상실 등에 대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엔 무슨 일이

2023년	
2월 3일	SM엔터 “이수만 없는 제책 시스템” ‘SM 3.0.’ 발표
7일	카카오, SM 지분 9.05% 매입 계획 발표
8일	이수만 반발, 신주 및 전환사채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10일	하이브, 주당 12만원 공개 매수
28일	카카오, 투자심의위 개최 및 SM엔터 주식 장내 매입 하이브, 금감원에 카카오 시세조종 조사 요청
2024년	
3월 7일	카카오, 지분 35% 목표 주당 15만원 공개 매수
8일	SM엔터 주가 시장최고가 (16만1200원) 돌파
28일	카카오, SM엔터 지분 39.87% 최대주주 등극
10월 23일	김범수 경영채신위원회 위원장 금감원 출석
11월 13일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11월 15일	김범수 위원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송치



한 비판이 쏟아졌다. 고속 성장이란 숫자 속에 가려졌던 카카오의 고질병들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채신 자체는 이미 불가피했지만, 사법 리스크로 더 수동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비상상황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카카오 직원들 사

이에선 “SM을 사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수사만 끝나면 지긋지긋해서라도 SM은 정리하고 싶을 것”과 같은 자조가 나올 정도다. 지난해 11월 경영 전면에 나선 김범수 위원장은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지난

해 12월 11일 임직원 간담회)로 카카오를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자율은 있는데 견제·감시·책임이 없다는 비판을 받은 계열사 경영은 컨트롤타워 ‘CA협의체’를 중심으로 개편했다. 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시조직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이은 강도 높은 채신에도 카카오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건 사법 리스크로 인해 ‘기술 기업 카카오’의 정체성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사법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AI라는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정신아 대표가 새로 취임한 뒤에도 여전히 미래 준비에 시간을 제대로 쏟지 못하고 있다. 정대안산 공개 당시 “말로만 하면 공허하다.”

는 건 연내에 카카오에 맞는 AI 서비스를 내는 것”이라며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여론 등 전방위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카카오는 국내에서 이미 사업 영역 확대나 수익성 향상 등을 꾀하기 힘든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래 10년 먹거리로 내세운 ‘비욘드 코리아’, 해외시장 개척의 길도 멈춘 상태다.

김범수 위원장 등이 시세조종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카카오 안팎에선 하루라도 빨리 리스크를 정리하고, 멈춰있는 미래 시계를 재가동하는 것만이 ‘뉴카카오’의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많다.

카카오 관계자는 “투자든, 인수든 결국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결국 카카오가 보여줄 수 있

윤정민·윤상언·이영근 기자

‘출퇴근 산재’ 신청 1만건 첫 돌파... 28%는 교통사고

도보·버스 등 출퇴근 중 다친 경우 폭넓게 인정하며 매년 증가 추세

직장인 A씨는 팀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 위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쳐 좌측 대퇴골 부위를 다쳤다. 이들 모두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출퇴근 산재’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

민의원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신청은 지난해 1만 1752건을 기록했다. 2020년 7732건이었던 출퇴근 산재는 2021년 8932건, 2022년 9326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이미 5월 기준 5955건을 기록하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시행된 출퇴근 산재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뿐 아니라 도보나 자차, 지하철·버스 등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출퇴근 중

장보기, 자녀 등하교 돕기,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다쳐도 폭넓게 산재로 인정된다. 하지만 퇴근 도중 지인과 만나 사적인 술자리를 갖는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상황에선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차량이 직장인들을 덮쳐 9명이 숨진 ‘시청역 참사’와 같이 교통사고에 의한 출퇴근 재해는 지난해 3254건으로, 전체의 27.7% 수준이었다. 역시 역대 최고치다.

출퇴근 산재 신청이 늘어난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출퇴근 시간대에 교

통사고가 소폭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월·급 평일 출근 시간대(오전 6~10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10시)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해 보니, 2022년 6만897건에서 지난해 6만2131건으로 2% 증가했다. 출퇴근 중에 당한 재해도 ‘산재’라는 인식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엔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개인적인 재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출퇴근 산재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산업재

해보상률도 낮아져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당초 목표나 실제 사고 발생 건수에 비하면 여전히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법 시행 당시 연 8~9만 건의 출퇴근 산재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행 6년 차인 지난해에야 1만건을 넘길 수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2)씨는 “수년 전에 회식을 마치고 버스로 귀가하던 중 개문발차(문을 연 상태로 출발) 사고로 넘어져 정형외과에서 수술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출퇴근 산재 보험은 증빙해야 하는 내용이 까다롭고, 회사에 눈치도 보여서 포기했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VIP에 내가 얘기” 공수처, 임성근 구명 정황 녹취 확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중앙일보 취재 등에 따르면, 이 파일에는 지난해 8월 9일 해병대 출신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씨의 전화 통화

가 담겼다. 통화 상대는 이 파일을 공수처에 제출한 공익신고자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는 임 전 사단장과 이씨가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측 단체대화방에 속한 변호사 A씨라고 한다.

이 통화에서 A씨는 이씨에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며 임 전

사단장을 거론한다. 이에 이씨는 “임성근이?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가 전화 왔더라고”라고 대답한다. B씨는 해병대 출신으로 같은 단체대화방에 속한 대령 경호처 전직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통화에서 이씨는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 할 테니 절대 사표 내지 마라”라고 말한다. 당시는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책임

론이 불거질 때였다. 파일에는 이씨가 임 전 사단장 진급을 언급한 부분도 있다. 이씨는 녹음 파일과 관련해 중앙일보에 “임 전 사단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관계다. 주변 지인들을 통해 얘기만 몇 번 들었을 뿐, 구명 로비는 한 적도 없고 할 사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A를 만난 적은 있지만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한 대화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도 아니다”라고 덧붙혔다. 임 전 사단장의 진급 및 구명을

거론한 통화에 대해선 “임 전 사단장 이야기가 나오길래 ‘잘 돼야지’ 같은 통상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았을 뿐”이라며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이 이씨를 통해 대령명실 등에 구명을 요청했는지 수사 중이다. 이씨가 대령명실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닌데도 과장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민 기자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

85세

\$406,309

25년후

Ex: 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연금 비용이 입금)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7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페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젤로스로드 터널링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계장 맛 못잊어 두번째 한국 근무”

키르파트릭 주한 스페인대사

“명동에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원 연말부터 문화 플래그십 역할 할 것 K문화는 특유의 성공 레시피 있어 내년 수교 75주년 더 많은 교류 기대”

스페인 정부의 문화 외교 첨병인 세르반테스 문화원이 올 연말 서울 명동에 개원한다. 기에르모 키르파트릭 주한 스페인대사는 지난달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르반테스 문화원은 스페인어 문화권의 문화부터 영화 및 음악 등, 다양한 문화 스펙트럼을 만끽할 수 있는 플래그십 센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원의 이름은 『돈키호테』로 잘 알려진 문호 미겔 데 세르반테스(1547~1616)의 이름에서 따왔다. 정식 개원행사는 수교 75주년인 내년 6월 25일 열린다. 스페인과 한국은 1950년 6·25 발발 직전 수교했다.

-수교 75주년의 의미-

“스페인인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대사관관에서 만난 기에르모 키르파트릭 주한 스페인대사. 한국 근무가 이번이 두 번째인 키르파트릭 대사는 “요즘엔 한우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한 다섯 번째 나라다. 오랜 기간 한국과 흔들림없는 외교 관계를 유지·강화해왔다. 양국 역사는 닮은 점도 많다. 내전의 상처를 딛고 경제 발전을 이뤘으며, 독재 정권을 겪은 뒤 민주주의 기반을 다졌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가 됐다는 점도 닮았다. 지난 수년간 정상급 교류가 다

채롭게 이어졌다.”
-이번이 두 번째 한국 근무인데.
“첫 근무는 2008년부터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2010년까지였다. 근면·성실한 국민과 역동적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항상 다시 오고 싶었다. 특히 간장계장 맛을 잊지 못하겠더라(웃음). 요즘엔 한

우의 매력에 푹 빠졌다.”

-한국 내 스페인 레스토랑은 어떤가.

“스페인 사람이 먹어도 맛있는 레스토랑이 많아졌다. 미쾨린(일명 미술랭)에서 별을 받은 곳도 생겼다. (스페인 유명 관광지) 산티아고 순례길에 제일 많이 온 아시아인이 한국인인데, 여행의 기억을 한국에 돌아와서도 즐기고 싶어하는 분이 많다고 들었다. 반가운 일이다.”

-스페인은 2023년 기준 해외 관광객이 프랑스(약 8940만 명)에 이어 2위(약 8370만 명)를 기록한 관광 대국인데.

“스페인 인구가 약 4800만 명인데 관광객은 그 두 배에 육박한다. 50개가 넘는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유산과 고속열차 시스템이 잘 된 덕이 아닐까. 스페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도 첫 한국 근무 당시엔 약 10만 명(2010년)이었지만 지금은 연간 63만 명이 넘는다.”

-기억에 남는 한국 여행지는.

“불교사와 진관사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사찰 특유의 분위기와 사찰요리의 맛을 잊을 수

없다. 동료 대사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하곤 한다. 외교관으로 세계 각지에서 살아왔지만 한국이 유독 친근하다.”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작품은.

“한국계 감독 켈린 송의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떠오른다. 한국의 영화를 보면 관객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하기보다는, 특유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주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다. 문화를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예술품으로 다룬다는 느낌이다. 이게 전 세계적인 K문화의 성공 레시피가 아닐까. 스페인에서도 K문화 인기가 뜨겁다.”

-스페인은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도 했는데.

“스페인은 한국과 모든 국제 이슈에서 함께하며, 북한의 각종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점에서도 한마음 한뜻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럽 국가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감사한다.” 전수진 기자

“자폐는 다름일 뿐”... 세계 최대 발달장애 축제 만든 부부

(오티즘 엑스포)

2019년 첫 개최, 올해 이달 12~13일 “장남 자폐 진단에 사표 내고 돌봄 치료법·교육정보 공유하는 자리”

이달 12~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오티즘(Autism·자폐성 장애)엑스포’가 열린다.

자폐와 발달 지연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 종사자, 관련 단체·기관이 참여해 치료법과 교육 및 연구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김정웅(58) 서플러스글로벌 대표와 조아라(54) 사회복지법인 함께웃는재단 사무총장은 부부 사이다. 두 사람은 올해 27세인 자폐 장남을 둔 인연으로 엑스포를 기획·지원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던 중 초등학생이던



2019년, 2022년에 이어 ‘오티즘 엑스포’를 주최하는 김정웅(오른쪽)·조아라 부부. 최기웅 기자

아들이 자폐 진단을 받았다”며 “곧바로 사표를 내고 아이 돌보는데 올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해외에선 자폐성 장애 교육·치료를 지원하는 박람회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걸 접하고, 2019년 국내에서 처음 개최했다.

올해엔 맞춤형 교육 솔루션 소개와 관계자 간 네트워킹 확대, 전시·공연 등 함께 즐기는 축제에 초점을 뒀다. 참여

단체가 100여 곳, 예상 관람객이 2만여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지난 엑스포 때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중년의 자폐 아들을 데려온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주변 눈치 안 보고 편안한 자리를 가졌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이런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보호자 발원대’도 마련할 겁니다.”(조 사무총장)

김 대표와 서플러스글로벌의 오티즘 관련 지원 금액은 누적 100억원에 이른다. 다음 목표는 ‘자폐체험버스’를 만들어 전국을 투어하는 것이다. 가상현실 장비를 활용, 일반인이 가진 편견을 바꿔보자는 뜻에서다. 김 대표는 “자폐는 뇌 신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름’일 뿐, 결여나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공수처 차장에 이재승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석인 제2대 차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사진)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는 10일 공수처 차장 후



보자로 이 변호사를 인사혁신처에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1998년 졸업했다.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 주로 형사부서에서 근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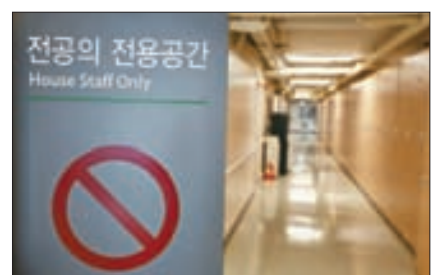
초대 여운국 전 차장이 퇴임한 지난 1월 28일 이후 공석이던 차장 자리가 이 변호사로 채워지면 2기 공수처 지휘부는 ‘판사 출신 차장, 검사 출신 차장’으로 꾸러지게 된다. 석경민 기자

“사직처리 않는 수련병원, 정원 줄일 것”

정부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 확정 시한(오는 15일)을 앞두고 수련병원에 ‘빠른 결정’을 요구했다. 결원을 확정하지 않는 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시한 연기를 요청했다.

9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전공의 복귀 대책을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보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직 후 9월 수련(하반기 모집)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22일부터 전공의 모집 절차에 들어가, 9월 수련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



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전용공간’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 8%(8일 기준)로 저조한 만큼,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 설득과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에 함께 속도를 내는 차원이다. 요컨대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주저하는 병원들을 압박하는 셈이다. 수련병원으로서 15일까지 전공의에게 개별 연락해 사직 여부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 등을 보내거나 아니면 일괄 사직 처리하는 선택지만 남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료 잡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앞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로 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전날 전공의 복귀 대책 발표에서 병원과 전공의 등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바뀐 입장을 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200개가량이 참여했다.

정종훈 기자

DC 창고 SOLD \$ 2.5M DC, NoMa Metro 상권	DC 사평센터 SOLD \$ 2.4M DC, Capital Hill 지역	DC 단독건물 SOLD \$ 1.5M Benning Rd., 개발지역	DC Mixed-Use SOLD \$ 1.6M Capital Hill지역	DC 사평센터 SOLD \$ 4.5M Popeyes, 연인컴 \$32만	DC NW 아파트 SOLD \$ 1.5M Metro 상권, 5 유닛
DC Georgetown SOLD \$ 930K Retail / Residential	DC H Street LEASED 단독건물 Union Station	DC Warehouse SOLD \$ 6.8M 67,000sf, Industrial	DC Warehouse SOLD \$ 5.8M 56,000sf, 창고 6에이커	DC Warehouse SOLD \$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for SALE \$ 1.8M DC 3 유닛 주상복합 NW Metro 상권

DC 건물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DC 건물 테넌트와 TOPA 거래 전문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연계로 최상의 조건으로 팔아드립니다!

미셸신 케빈신

703.395.3123

FORTUNE Realty Advisors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선화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우리말 바꾸기

‘들려야’, ‘들려야’

“엄마,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 들렀다 올게요.” “다른 데는 들리지 말고 빨리 와야 한다.” 여기서 ‘들렸다’ ‘들리지’는 바르게 적은 것일까? 말할 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 ‘들리다’인지 ‘들르다’인지,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헷갈린다. 예문에서처럼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는 행위를 나타낼 때는 ‘들리다’가 아닌 ‘들르다’를 써야 한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된다. 그러므로 예문을 “엄마,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 들렀다 올게요.” “다른 데는 들르지 말고 빨리 와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이처럼 ‘들렀다’나 ‘들리지’가 잘못 쓰기 쉬운 형태다. ‘들러’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오랜만에 친정에 (들렀더니/들르더니) 맛있는 음식을 손에 잔뜩 (들러/들리) 보냈다”에서는 각각 어떤 단어를 골라야 할까. 정답은 “오랜만에 친정에 들렀더니 맛있는 음식을 손에 잔뜩 들러 보냈다”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이슈 진단

북러 밀착의 후폭풍



이무영
뉴미디어국장

사 로저 위커 의원은 “푸틴의 24년만의 방북은 새로운 안보 현실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짐 리시 의원도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지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는 작지 않다. 게다가 지난 6월27일 첫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쇠한 모습을 보여 사퇴압력을 받고 있어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공화당의 한반도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

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민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독자적 핵무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히 밀착하면서 한국의 안보 위기가 크게 고조됐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러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이후 더욱 거세지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독자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6%가 주한미군 주둔보다는 독자 핵무장을 지지했고, 40.1%는 독자 핵무장보다는 주한미군 주둔을 선호했다. 주한미군 주둔보다 독자 핵무장을 선호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독자 핵무장을 지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정책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다. 북러가 밀착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독자 핵무장 등 좋은 선택도 싫은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떠밀리고 있다.

살며 생각하며

배낭과 바위



김선주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

배웠는데요! 이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더 건강한 바운더리를 못 가지고 살다가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어지기가 아쉽다. 기독교인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고, 또 내 짐은 내가 져야 할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필요로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그것이 그가 매일 스스로 메고 걸어야 할 배낭인지, 아니면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바위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어느 정도 크면 스스로 메어야 할 자녀의 배낭을 기어코 자신이 메어주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라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바운더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바위 같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성장 과정의 짐을, 혼자 지라고 몰아치는 부모는 더 문제다. 이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No가 아니라, Yes, 그래, 너 힘들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것이다. 이 배낭과 바위의 원칙은 부부에게도, 형제간에도, 친구나 직장 동료 같은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된다. 내가 받는 부탁이 그 사람의 배낭인지 바위인지를 먼저 생각해보자. 내가 하는 부탁도 내 배낭을 메어달라는 것인지, 무거운 바위를 도와달라는 것인지 생각하고 부탁하자. 살다 보면 감당하지 못할 바위 같은 짐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혼자 지고 끄덕대다 허리가 나가기 전에, 우울증에 걸리기 전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자. 반대로, 내 배낭도 잘 못 메면서, 노를 못헤 남의 배낭까지 짊어지다 보면 반드시 번아웃에 빠진다. 예상 못 한 분노가 생긴다. 바운더리 없이 에스만 하는 것이, 날 싫어하고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스런가? 아무리 에스만 해줘도 이용할 사람은 이용만, 노를 해도 사랑할 사람은 사랑만 한다. 건강한 바운더리가 나를 지킨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기능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지몬드 페넌슐라 상담할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백서에 ‘문자 파동’ 추가할지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

국민의힘 총선 백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일본 자민당 다케시타 와타루 전 의원(2021년 작고) 때문이었다. 그는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10년 넘게 한 다케시타 노보루 전 총리의 이복동생. 12년 전 그와 점심을 하며 자민당의 2009년 총선 참패를 화제 삼아 두 가지에 잠깐 놀랐다.

첫째는 자민당이 총선 패배 후 ‘반성회’를 무려 50회 넘게 열었다는 사실. 징그러운 정도의 철저함이다. 또 하나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는 사실. 총선 결과를 반성하고 그 걸 남기는 게 너무나 당연시돼 반성회와 백서를 내는 게 ‘화제’조차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기이하다. 총선이 석 달이나 지났는데 당시 장수였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현 당 대표 후보)은 백서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황우여 현 비대위원장은 면담 200명, 특위 전체회의 14차례가 집대성된 백서를 전당대회 전에는 내지 말라고 한다. 당 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 측은 “빨리 안 내고 뭐 하나. 그럴 땐 그냥 없으면서 백서 TF팀장을 맡았느냐”고 다그친다. 책임자인 조정훈 의원은 진퇴양난이다. 그동안 유형·무형의 압박에 시달려 정신적으로도 시달렸다고 한다. 당사를 나서면서 “백서 발간은 한동훈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는 일부 당원들이 조 의원을 둘러싸고 총출 직전까지 가는 일도 있었다. “자신이 당 대표에 나서려고 저러는 것”이란 음해도 많았다.

그는 8일 “지난 주말 내내 김건희 여사-한동훈 후보 간 ‘사과 문자’소동을 지켜보면서 이렇다 누가 당 대표가 되건 당이 온전히 가능하겠는가 한숨만 나오더라”고 했다. “백서에 ‘읽씹’ 내용을 추가로 담을지 여부를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겠다”라고도 했다.

“당초 6월 말, 7월 초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전당대회(7월 23일)를 개혁을 위한 난상토론의 장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비대위(위원장 황우여)가 강한 톤으로 ‘전당대회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당대회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건데, 역부족이다. 이 표현밖에 쓰지 못하겠다. 다만 4명의 당 대표 후보 중 3명은 전당대회 전 발간에 찬성하니 한 후보만 동의하면 전당대회 전에 낼 수 있다. 난 작가이자 편집자이다. 하지만 책을 언제 내면 제일 잘 팔릴지 결정하는 사람은 출판사 사장이다. 당으로 따지면 비대위원장이야.”

“출판사 사장도 작가나 편집자와 상의해서 출간 시기를 정하지 않나. “우리 출판사는 좀 수직적인 것 같다.”

“한동훈 후보가 왜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나.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소회, 향후 개선안, 그리고 구체적인 분야별 질문을 SNS와 이메일을 통해 전했다. 하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다. 추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당시 최종 의사 결정자의 이야기 없이는 백서가 완전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정권심판론 파도 몰려올 때 서핑보드는 엉망, 서퍼는 초짜 나는 백서 작가 겸 편집자, 발간 시기는 출판사 사장의 결정 한동훈이 당 대표 당선돼 백서 내용 공개면 가만 안 있을 것”

왜 발표 시기를 아직도 정하지 않나.

“당초 6월 말, 7월 초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해 전당대회(7월 23일)를 개혁을 위한 난상토론의 장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런데 비대위(위원장 황우여)가 강한 톤으로 ‘전당대회 이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당대회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고 싶었던 건데, 역부족이다. 이 표현밖에 쓰지 못하겠다. 다만 4명의 당 대표 후보 중 3명은 전당대회 전 발간에 찬성하니 한 후보만 동의하면 전당대회 전에 낼 수 있다. 난 작가이자 편집자이다. 하지만 책을 언제 내면 제일 잘 팔릴지 결정하는 사람은 출판사 사장이다. 당으로 따지면 비대위원장이야.”

출판사 사장도 작가나 편집자와 상의해서 출간 시기를 정하지 않나.

“우리 출판사는 좀 수직적인 것 같다.”

“한동훈 후보가 왜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나.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 소회, 향후 개선안, 그리고 구체적인 분야별 질문을 SNS와 이메일을 통해 전했다. 하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다. 추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당시 최종 의사 결정자의 이야기 없이는 백서가 완전

할 수가 없다. 선거는 당이 치른 거지 대통령이 치른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아쉽다.”

“백서에는 책임자들의 심각한 당헌 당규 위반 내용도 담겼다.”

“상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 하지만 총선이라는 전쟁터에서 그런 것 한두 개 어겼다고 해서 비난할 순 없지 않나. 진짜 중요한 건 광범위하게 당헌, 당규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속절없이 졌다는 것이다.”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백서 발간이 유야무야 될 것이라 지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특위 위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그때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백서는 이렇게까지 주목받을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과거의 권력을 평가하는 과정인데 돌연 과거의 권력이 미래 권력의 유력 후보가 돼 버렸다. 민감한 문제가 돼 버렸다. 이걸 백서팀 잘못이 아니다. 우리로선 억울하다. 총선 직후 임무를 맡을 때 한 후보가 당 대표에 출마하리라고 그 누가 예상을 했겠는가.”

“총선 참패 이유를 요약하자면.

“정권심판론이란 파도가 올 것을 알면서도 맞고 말았다. 전략이 없었다. 또 파도를 탈 서핑보드, 즉 시스템도 약했

다. 마지막으로 보드에 올라탄 서퍼도 초짜였다.”

‘읽씹’과 채상병 재표결이 변곡점

“한 후보를 견제하는 ‘친윤 후보’로 나서려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밥 한번, 차 한잔 같이해 본 적이 없다. 지난 5월 30일 당선자 연설회 만찬 때 내가 있는 테이블에 와서 ‘야, 내가 조 의원 선거 결과 보느라고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을 몇잔 마신 줄 알아?’라고 농담을 건넸다. 유일하다(조 의원은 마포갑에서 599표 차로 승리함).”

“현 전당대회 판세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 맞나.

“파도와 깊은 수심에서 움직이는 해류는 다르다고 본다. 한 후보의 팬덤은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 관점에서 물 위의 찰랑거리는 파도일 뿐이다. 한 후보는 총선 후 정치가 재미없어져 TV를 꺼버린 보수파, 고민하다 민주당을 찍은 중도층에 확장성이 없다.”

“한 후보의 출마회견, ‘사과 문자’사태 대응을 보며 수용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뭐냐.

“출마회견은 검사 한동훈의 재등장 같았다. 정의와 공정을 지키고 민주당 주장을 또박또박 받아치는 세련된 스타일의 신세대 같은 느낌은 검사 한동훈으로서 만점이라고 본다. 다만 정치인 한동훈, 우리가 기대하는 한동훈은 넓고 깊어야 한다. 또 자신의 약점을 서슴없이 보여줘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이 아들 현철씨가 감옥에 갈 때 청와대에서 창문 너머 물끄러미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김영삼의 정치적 무게를 느꼈다고 생각한다. 백서 안해도 좋다. 하지만 ‘만만하게 봤는데 정치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공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렵더라. 쉬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 해야 했다. 그런데 여전히 검사 한동훈이었다. 문자 사태 대응도 마찬가지다. ‘모든 게 내 책임이었다’고 담백하게 대응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나.

“아무래도 ‘읽씹’ 문제에 대한 여론향배, 그리고 채상병 특검 재표결이 있을 오는 19일에 한 후보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중요 변곡점이다.”

“결선투표를 예상하나.

“무조건 결선으로 간다. 문제는 1차 투표 후 결선투표까지의 닷새다.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이다. 물론 한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하면 통합이 힘들어진다. 향후 2년 동안 선거가 없어 결선투표에서 3, 4위 후보 측과 딜(교섭)을 하기도 힘들 것이다.”

정청래 밑에서 간사 싫어 법사위 피해

“‘훈훈 브라더스’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사이 좋던 한 후보와 왜 틀어진 건가.

“법사위에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이던 한 후보와 뭔가 통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난 집권 여당다운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조 심판론 말고 굵직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이 전과 6범인데 알고 보니 8범이더라는 식으로 아무 소용없다고 했으나 (한 위원장은) 달랐다. 총선 다음날 격려 통화를 나눈 게 마지막 소통이었다.”

“법사위 간사를 거절했다던데.

“난 정청래(위원장) 밑에서 간사를 하기 싫었다.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란 말을 그에게 할 수 없다.”

“세계은행에 오래 근무하다 정치에 뛰어들지 못한다. 후회 안하냐.

“세계은행에 남았으면 부총재까지는 했을 것이다. 정치에 뛰어들어 온갖 욕은 다 먹었다. 아이는 집에 가면 ‘아빠, 오늘은 댓글 보지 마’라고 한다. 본인이다 읽어봤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도 정치는 내 소명인 것 같다.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같이 조정훈 하면 떠오르는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양극화 해소가 목표다.”

김현기 논설위원

궁금한 기사
중앙일보 안에
있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시설

국민 세금까지 지원해준 대표 기업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196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에서 파업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잇따른 사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삼노는 합리적인 임금 인상과 성과급의 투명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의 목적을 “반도체 생산 차질”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당장은 생산 차질이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15일부터 2차 파업이 예고돼 있고 조합원 대다수가 반도체(DS) 부문 소속이어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멈추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삼성전자 노조도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파업할 권리가 있다.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은 노사의 자율적 협상에 맡기는 게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을 지켜보는 심경은 편하지 않다. 장맛비 속에 대규모 집회를 열고 현장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파운드리 클린 라인이 멈췄다’ 등의 문구가 뜨자 조합원들은 환호했다. 고객과의 신뢰가 중요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조의 이런 모습은 거의 ‘누워서 침 뱉기’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다. 시가총액은 522조원(8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22.3%를 차지한다. 무려 25년간 1위 자리

다. 경제성장률이나 수출·세수 등의 경제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 노사는 연봉 인상률 5.1%(회사)와 6.5%(노조)를 놓고 싸우고 있다. 모처럼 돌아온 반도체 경기 회복기를 노사 갈등에 휘둘러 허비하지는 말아야 한다.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 평균연봉은 1억 3500만원이다. 귀족 노조도 파업할 수 있다. 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진 아니어도 대한민국 1등 기업 직원답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라고 정부가 준 감세 혜택을 삼성전자는 몰아서 받았다. 나라살림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받은 세금 감면액은 6조 7068억원으로 압도적 1위다. K칩스

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공제 확대,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입 등의 파격적 감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에도 17조원의 저리 대출과 도로·용수·전력 등의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정치권은 정부보다 더 센 지원법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정부가 주저하는 보조금 지급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받은 감세 혜택과 앞으로 예상되는 추가 지원은 모두 이 기업을 응원해 온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아무리 민간 기업의 파업이라지만 대기업임에도 삼성전자에 세금을 환해줘 지원해 온 국민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길 바란다.

지난해 받은 감세 혜택 6.7조원으로 압도적인 1위
여야도 반도체 지원 경쟁... 무거운 책임감 느껴주길

평화 엔트로피의 법칙

강주안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지난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더불어민 주당에서 거리에 걸여 놓은 현수막 중 하나가 ‘평화가 안보’ ‘대결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였다. 평화와 안보는 대체로 함께 사용되는 동반어라 한 문장에 담겨 있으면 익숙하다. 그런데 곱씹어 보면 뭔가 어색하다. 평화와 안보일까, 안보가 평화일까.

나라의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는 평화로운 상태에 있어야 외부의 도전과 위협에 덜 휘둘린다는 ‘평화가 주는 지구력’을 뜻한다면 ‘평화=안보’가 맞겠다. 하지만 평화의 지속가능성으로 본다면 안보가 평화를 보장하지 평화가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이다.

역사의 무수한 국면에서 나라의 평화는 희생과 실력을 기반으로 유지됐다. 나라의 흥망성쇠뿐이겠는가. 인생사도 같은 이치다. 우리 인생에서 거저 누린 평화가 있었다면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를 사랑했던 누군가가 희생하고 땀을 흘리며 미리 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올해 대한민국의 평화엔 59조원이 들어가 있다. 2024년 국방예산이 59조 4000억여원이다. 이 돈으로 상비군 50만 명을 유지한다. 상비군 다수는 황금 같은 20대의 시간에서 최소 18개월을 떼어내 나라에 낸 젊은이들이다. 지금의 평화는 누군가가 낸 돈과 청춘으로 유지된다. 평화는 그래서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된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질서로 퇴행한다.

동시에 평화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규정된다. 평화를 주장할 땐 상대에게 평화를 강요할 수 있는 억제력, 받아들이도록 만들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억제력도, 설득력도 없는 평화는 꿈으로 그친다.

‘대결보다 대화’, 맞는 말이다. 단, 평화를 지킬 능력이 있어야 대화로 나설 수 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상황에 끌려갈 뿐 도무지 없다.

사실 우리의 의식과 언어는 변증법적으로 서로를 규정한다. 뇌가 언어를 지배하지만, 언어 역시 의식을 규정한다. 인

식은 언어로 표현되면서 형태를 입는다. 개인의 인식과 함께 사회적 담론도 집단의 언어로 규정된다. 평화 자체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한국 사회의 주된 담론이 되면 자칫 냉정한 현실에는 깊은 채 집단 최면에 빠질 수 있다.

지금 동북아 정세는 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보여준다.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틈만 나면 핵 공격을 운운하고 있다. 핵 공격을 놓고 예컨대 북한이 쏜 전술핵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폭발해 수만 명이 즉사하는 걸 상상한다면 순진한 생각이 다. 북한의 핵 파괴력은 핵 공격 이전에 발생한다. 북한이 돌연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전술핵 미사일 몇 기를 지상에 노출한 뒤 전선에 병력을 집결하고, 한미연합사가 데프콘 경보를 상향 발령한다. 얼마 후 외신이 국내 거주 미국인의 일본 철수(NEO·비전투원 소개 작전)를 전

비용 안 치르면 무질서로 퇴행
주변국 모두 자국 최우선 주의
말 아닌 의지와 실력으로 지켜야

세계에 타전하며 한국 자산시장에 충격 파가 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구사했던 현대전은 SNS를 심리전에 동원하는 하이브리드전이다. 외국 자본이 속속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는 와중에 SNS에서 북한발 유언비어가 횡횡하며 사회가 공황 상태에 빠지면 북한은 핵을 쏘지 않고도 대한민국의 경제·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

정도만 다를 뿐 주변국 모두 녹록지 않다. 중국은 미·중 대결 속에서 한국을 대하며 한국 길들이기를 고수하고 있다. 양국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은 여전히 과거사를 직시하지 않는다. 이번에 한반도에 새롭게 발을 들이던 러시아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 외교를 구사하려고 한다. 동맹국 미국이 11월 대선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미국일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마치 구한말처럼 주변국들이 일제히 자국 최우선주의를 내걸고 노골적 압박 외교도 서슴지 않는 지금,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의지와 실력이다.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오지는 않는다.

Chief 에디터

화재 4회, 폭발 3회... 위험 징후 무시했던 아리셀 참사

경기도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선 지난달 발생한 참사 외에도 최근 3년간 네 차례나 더 불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에서 군에 납품한 1차 전지도 지난 3년 동안 세 차례나 폭발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화재와 폭발에 대한 안전 규정과 예방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건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는 2021년 두 차례, 2022년에 한 차례 불이 났고, 참사 이틀 전인 올 6월 22일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모두 리튬 배터리 폭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또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아리셀이 육군에 납품한 배터리가 2022년 2회, 지난해 1회 폭발했다고.

이런 이력을 보면 적어도 아리셀은 제품과 생산 과정에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는 급속 화재용 소화기가 없어 참사 당시 일반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 폭발과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배터리 제품 3만 1000여 개를 출구 쪽에 쌓아두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전교육도 없이 투입했다가 참혹한 변을 당했다.

당국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경기도 남양 119안전센터는 아리셀 3동 생산라인에 대해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소방활동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아리셀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체 점검 보고서

를 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 노동부는 아리셀을 2년 연속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해 통보했었다. 하지만 ‘자율적인 노력’을 하라는 요청만 하고 말았다. 수많은 위험 징후를 그냥 넘겨버린 결과는 결국 대형 참사로 귀결됐다. ‘모든 참사는 인재’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 같다.

근본적으로 리튬 관련 화재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다. 리튬은 열과 압력이 가해지면 쉽게 폭발한다. 금수성(禁水性) 물질이어서 물을 뿌리면 폭발력만 커진다. 그런데 환경부는 상온에서 불이 잘 안 붙는다는 이유로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지 않았다. 소방청도 리튬 등 급속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끌 수 없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 전용 소화기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리튬 배터리 제조 라인도 일반 제조업체와 똑같이 연면적 3만㎡를 넘지 않으면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특별점검도 받지 않는다.

소방청은 이번 사고를 겪고서야 리튬 배터리 화재 대응과 급속 화재 소화기 기준 도입을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전용 소화기 도입에 그치지 말고 리튬 등 급속 화재 발생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하고, 제조 공장과 대량 소비처를 특별 소방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사고 위험을 알고 있고, 이미 사고가 빈발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직무무기다.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제1종) 인쇄사 마우더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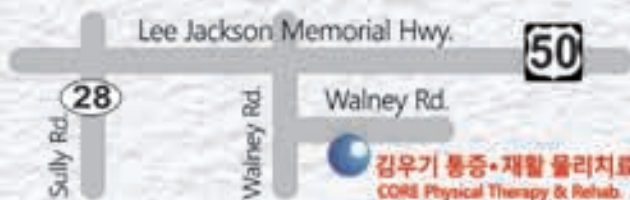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aquaviwater.com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179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249

알칼리수 \$219

알칼리수 \$23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무료 설치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SAVE MONEY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July 10,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주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맨발걷기 초보자는 2000보 이내, 당뇨 있는 사람은 금물

맨발 걷기가 대유행이다. 전국 곳곳에 맨발 걷기 황톳길이 깔렸다. 아파트 근처 야산에는 신발 신은 사람보다 맨발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공원과 학교 운동장은 물론 아파트 베란다에도 맨발 걷기 장비를 갖춰 놓고 걷는 이도 많다. 지자체들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최근엔 ‘지구와 우리 몸을 연결한다’는 어싱(Earthing) 개념도 뜨고 있다. ‘접지(接地) 효과’라고도 불린다. 염증과 암 등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는 양전하를 띠는데 음전하가 풍부한 지표면을 맨발로 걸으면 양전하와 음전하가 중화돼 활성산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맨발 걷기 예찬론자들은 단순한 지압이나 운동 효과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주장한다. 혈액순환 촉진 및 근육량 증가, 체온 상승, 스트레스와 통증 감소, 심리적 안정감 향상, 우울증세 감소, 숙면 등이 꼽힌다. 고혈압·당뇨는 물론 말기 암까지 나왔다는 ‘간증’이 유튜브 등에 올라와 있다.

현재 전국에서 100만 명 정도가 맨발 걷기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관련 기관들은 추산한다.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국제맨발걷기협회’ 같은 조직도 생겨났다. 회원 중에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전국 100만여명 즐겨, 지자체 활성화 나서 맨발 걷기 열풍에 힘입어 관련 제품들도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전기 저항을 낮추고 전도성을 높인 소재로 접지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어싱 전용 양말’이 나와 있다. 겨울철 보온을 위한 ‘발 열 덧신’, 발가락과 발바닥 부분에만 구멍을 뚫어 놓은 ‘어싱 양말’, 구리 소재를 넣어 실제 접지와 비슷한 효과를 낸



지압 따른 혈액순환 등 효과로 각광
의학적 효능 없다는 반대 의견도
처음부터 오래하면 족저근막 무리
당뇨 환자, 발 상처 나면 감염 위험

- 맨발 걷기 효과**
- 혈액순환 촉진, 근육량 증가
 - 발 고유 근육 자극, 넘어짐 방지
 - 심리적 안정감 향상, 우울증 감소
 - 발 근육 강화, 무지외반증 예방

- 맨발 걷기 주의할 점**
- 당뇨환자, 면역력 떨어진 사람은 금물
 - 겨울철 실외 맨발 걷기도 위험 커
 - 걷기 전후 발에 상처 있는지 체크
 - 황톳길·잔디밭·흙길·갈길·산길 순으로

다는 ‘실내용 어싱 패드’ 같은 제품까지 나오고 있다. 맨발 걷기 효과를 둘러싸고 의학계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효과를 입증한 여러 사례가 있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지압에 따른 혈액 순환과 운동량 증가 효과는 확실히 있다는 거다.

교수는 “맨발로 걸으면 발의 고유 근육들이 자극을 받아서 발달할 수 있다. 그게 자율신경계와도 연결이 돼서 심장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나아가 들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 주는 고유 감각이 떨어져 잘 넘어지는데, 맨발 걷기로 발바닥을 자극하면 족부 근육이 자극돼서 넘어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재활의학과 임오경

정영재 기자 >> 3면 '당뇨'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춘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춘 앞 7700 건물 6층**

덥다고 '하이볼' '맥사' 벌컥벌컥...출산 맞먹는 고통 부를 수 있어요

〈맥주·사이다 섞은 음료〉

여름철 통풍 주의보 여름이면 유독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이 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할 만큼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다. 통풍은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요산이 뾰족한 결정체를 형성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통상 1년 중 6~8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다. 과도한 땀 배출로 인한 탈수 현상, 통풍에 영향을 미치는 식음료 섭취 증가 등으로 인한 결과다. 하지수 기자

통풍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산은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찌꺼기다. 보통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요산이 과잉 생성되거나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체내에 쌓이게 된다. 이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통풍이 발생한다.

체내 쌓인 요산 원인, 6~8월 환자 최다

요산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데는 유전적 요인이나 식습관 등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름철 즐겨 찾는 특정 식음료는 체내 요산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당이 많이 첨가된 아이스크림·탄산음료·주스 등이다. 날이 더워지면 소비량이 증가하는 맥주도 예외는 아니다. 요산의 원료가 되는 퓨린 함량이 많아 통풍 환자에게는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맥주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맥주가 다른 술보다 더 위험한 건 맞지만, 알코올이 들어간 모든 술은 신장에서 요산 배설을 억제해 통풍 발병의 위험을 키운다. 최근 젊은 층이 즐기는 하이볼(위스키에 소다수 등을 섞은 음료), 맥사(맥주에 사이다를 혼합한 음료) 등의 혼합 술은 그 위험을 가중한다. 알코올로 요산 배출이 방해되는 상황에서 음료 속 과당이 혈중 요산 농도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산의 과다 생성, 배출 억제를 동시에 일으키는 셈이다.

탈수 현상은 여름철 통풍 환자 수를 높이는 또 다른 원인이다. 폭염에는 밖에 서 있거나 해 뜨는 데 땀이 줄줄 흐른다. 땀을 많이 흘리면 체내 수분이 다량 빠져나가는데, 이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탈수로 체내 요산 농도가 높아

질 수 있다. 때로는 몸매 관리를 위해 섭취하는 단백질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몸무게 1kg당 0.8~1g 정도다. 만약 매끼 고단백 식품만 먹는 등 권장량보다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대사 과정에서 요산이 지나치게 생성돼 통풍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 가수 김종국은 한 방송에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 통풍에 걸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젊다고 방심은 금물이다. 과거에는 주로 40대 이상에게서 통풍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20~30대 통풍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통풍의 주요 증상은 극심한 통증이다. 엄지발가락이 가장 흔한 부위며 발등, 발목, 손가락, 무릎 등에도 손도 못 댈 수준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출산에 맞먹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통증은 대개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해지며 몇 시간 이내 사라지기도 하지만 몇 주간 지속할 수도 있다.

알코올 들어간 모든 술이 통풍 위험 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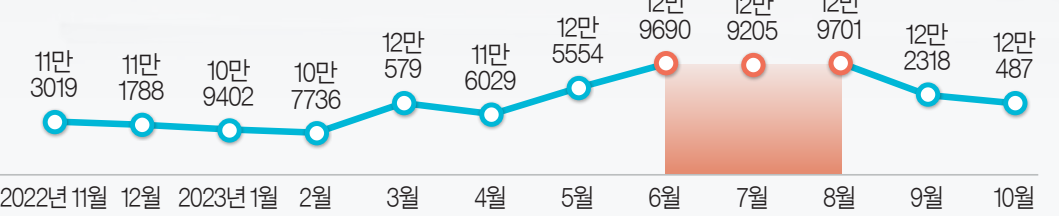
통풍일 때는 염증 발생 부위가 심하게 붓고 빨갛게 변하기도 한다. 환자에 따라 끈적끈적한 땀이 흐르거나 하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 결정성 통풍으로 진행돼 관절의 광범위한 손상과 변형 등이 일어날 수 있다.

통풍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핵심은 요산 수치 관리다. 일단 퓨린이 과도하게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줄인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동물의 내장, 등푸른 생선 등이다.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나



월별 통풍 환자 추이

*단위: 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공식품도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 과량의 지방 섭취는 요산 배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음식을 조리할 땐 가급적 기름을 적게 사용한다. 물을 충분히 마셔 소변을 통한 요산의 배설을 이끄는 것도 좋다. 또 비만은 통풍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체중을 줄여나가도록 한다.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 물치료도 도움된다. 요산이 덜 만들어지게 하

나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약을 통해 체내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약해져 요산 배출 능력이 떨어지고 합병증 발생률도 높아지므로 더욱 신경 써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김문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송란 강동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교수, 송정수 중앙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전문의 칼럼 박형권 기쁨병원 피부미용센터 피부과 과장

항노화 치료, 얼굴에 티 안 나려면 맞춤 상담 필수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이다. 항노화, 즉 안티에이징은 말 그대로 '노화를 되돌린다'는 의미다. 진행하는 노화를 적절한 방법으로 지연 또는 복구시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노화를 완벽히 되돌리거나 불가능할 뿐 아니라 너무 과한 시술을 받게 되면 누구도 원치 않는 '티 나는 얼굴'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부 노화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 뿐 아니라 피하지방, 근육, 뼈 등 전체 구조의 변화를 일으킨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부 표면의 두께가 감

소하고, 피부의 장벽 기능이 감소한다. 또한 진피의 콜라겐 양이 줄어들어 두께가 얇아지며, 자외선에 오래 노출돼 탄력 섬유가 영향받아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피부 표면의 변화 외에도 지방층, 근육, 뼈의 변화가 발생해 볼륨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피하지방의 전체적인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해골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중력의 영향으로 지방조직이 아래로 처지면서 턱 라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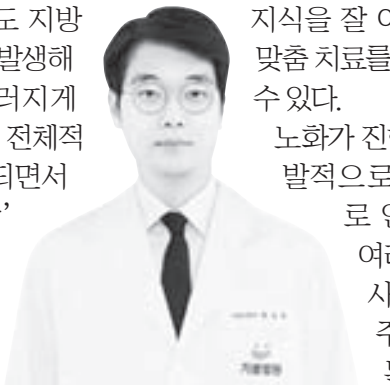
흐러지고 입 주변이 불룩한 '심술보'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얼굴의 지방이 여러 개의 구획으로 나뉘고 각 구획의 섬유화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다. 이러한 해부학적 지식을 잘 이해해야 이에 따른 맞춤 치료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시에 발적으로 발생하는 변화들로 인해 피부과에서는 여러 치료법을 조합해 사용하고 있다. 즉 잔 주름 완화를 위해 보톡스를 주사하고,

피부 표면의 건조함과 푸석함을 호전시키기 위해 각종 스킨부스터나 크림과 관리를 시행한다.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 콜라겐 합성 부스터를 사용하거나 고주파 장비를 사용한다. 또 처진 턱 라인과 이중턱 교정을 위해 초음파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고, 군데군데 부족한 볼륨 교정을 위해 필러를 주입하기도 한다. 이외에 광노화로 발생한 얼굴의 흑자나 잡티, 기미, 모세혈관확장증 등을 교정하기 위해 색소 레이저와 혈관 레이저를 활용한다.

이처럼 '항노화 치료'를 단순히 '여기 주름 좀 펴주세요'처럼 국소적인

치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해 다방면에서 교정이 들어가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술은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항노화 치료'라는 큰 틀에서는 하나로 묶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합으로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숙련된 피부과 전문의와의 꼼꼼한 상담을 통해 지금 나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제 어느 정도까지 개선될 수 있을지 예측해 보는 과정이 필수다. 그에 따라 필요한 시술을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시술함으로써 항노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투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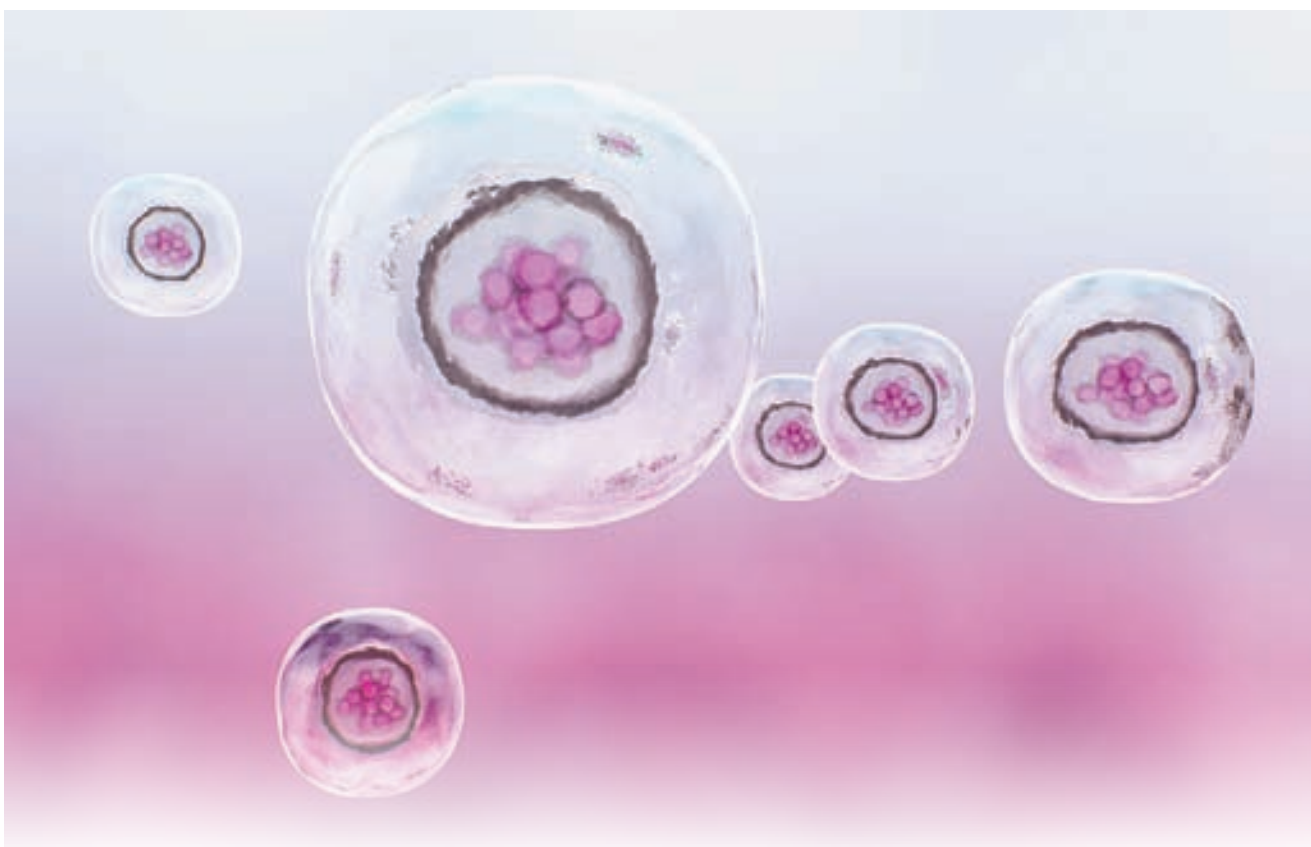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냉동 배아, 냉동 난자보다 임신 확률 높아... 만 35세쯤 고려할 만

배아 보관 팩트체크 배아 보관은 자녀 계획이 늦거나 불확실한 부부가 미래를 대비하는 데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의 하나다. 추출한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시켜 배아로 만든 뒤 얼려 보관해 두는 가임력 보존 방법이다. 잠실차병원 난임센터 최승영 교수는 “결혼·초산 연령이 늦다 보니 이제는 난임에 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알아야 적절하게 대응할 때를 놓치지 않는다”며 “30대인데 학업이나 해외 거주 등으로 당분간 아이를 갖기 어려운 부부, 둘째 아이 난임, 수년간 덩크족(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이었다가 계획을 뒤늦게 번복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말한다. 난임 치료 전문가인 최 교수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배아 보관에 관한 핵심 정보 5가지를 알아봤다.

이민영 기자

1 배우자 있으면 배아 보관이 이익
냉동 배아는 냉동 난자보다 임신 확률을 좀 더 높여준다. 임신 가능성이 확보된 배아를 선별해 보관해서다. 난자를 채취해 정자와 수정시키고 최대 7일까지 배양하는 과정에서 건강하지 않은 배아는 걸러진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아 보관을, 없으면 난자 보관을 권하는 이유다. 일반적으로 냉동한 난자의 절반가량은 해동 단계에서 죽는다. 최 교수는 “잘 자란 배아 한두 개만 골라 얼려 두어도 다음에 녹여 임신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냉동 배아 개수는 시술 당시 남편의 정자 상태와 아내의 자궁, 난소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실패에 대비해 4~5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만 내지 40대 초반엔 자녀 계획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보관해둔 배아로 임신, 출산에 실패했을 때 차선책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다. 최 교수는 “배아 등급이 좋을수록 임신율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임신, 출산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며 “배아 보관 역시 나중을 대비하는 정도의 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배아 보관 기간(5년)에 따른 임신율은 별 차이 없다. 배아 동결 기술이 진일보했다. 최 교수는 “보관을 오래 해 두면 안 좋을까 봐 서둘러야 해야 하나 걱정하는 환자가 많은데, 보관 기간에 따른 부담감은 덜어준다”며 “잘 키운 배아는 얼렸다 녹였을 때 생존율이 높다. 배양과 급속 냉동 등 단계의 기술이 안정적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2 최대 보관 5년, 시술은 만 37세 안 넘게
배아 보관 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5년이다. 이후엔 폐기해야 한다. 보관 기간을 고려해 시술 연령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연령이 어릴수록 한번에 좋은 배아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보관 만료 시기 나이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시술 연령이 고민되면 현실적으로 너무 이르지는 않은 만 35세 정도, 늦어도 만 37세는 넘기지 않는 게 좋다”며 “보관의 의미는 좋을 때 얼려두고 나중에 쓰겠다는 것인데, 만 40세가 넘으면 좋은 배아 비율이 확 떨어지는데다 보관했던 배아로 임신할 확률도 낮아진다”고 했다.

3 둘째 난임, 무자녀 계획 번복 대비
배아 보관은 그간 짧은 암 환자들과 자궁내막증 환자들이 주로 했다. 항암 치료와 난소 기능 저하 등으로 자연 임신이 어려워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의학적, 환경적으로 난임 원인이 다양해졌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배아 보관의 활용 범위가 확대될 여지가 크다. 난임 병원에서의 의뢰로 많은 환자는 둘째 난임이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첫째를 자연 임신으로 잘 낳으면 둘째도 문제없다고 여겨졌는데, 요즘은 둘째 계획 시점이 만 35세를 넘어간다. 둘째 임신에 부부 간 의견이 달라 배아

를 보관해 두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30대 부부가 당장 아이를 낳을 형편이 되지 않으면 배아 보관이 대비책의 하나다. 최 교수는 “진료실에서 보면 난임을 생각 못 하다 뒤늦게 후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러 단계의 난임 치료가 필요해 고생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녀 계획을 막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만 40세를 넘기면서 확고하게 임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을 대비해 배아를 얼려둘 수 있음을 선택권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좋다”고 조언했다.

5 건강관리 준비로 미룰 필요 없어
좋은 배아를 얻기 위한 부부 건강 관리로는 먼저 술·담배를 멀리하는 것이다. 심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개산·관리하려고 노력하는 정도면 된다. 금연 등 건강관리할 준비 기간을 갖겠다며 배아 보관 일정을 무리하게 미룰 필요는 없다. 최 교수는 “정자가 새로 만들어지는 데 3개월 정도 걸리고,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충제는 염산과 비타민D를 기본적으로 추천하나 의학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했다. 배아 보관 시도 시 기간은 2주 정도 필요하다. 병원은 3~4번 방문하면 된다. 배아 냉동 등 난임 치료에 정부 지원이 확대돼 비용면에서 접근성이 좋아졌다.

4 보관했다고 막연한 안심 말아야
배아 보관을 해줬다고 막연하게 안심하는 건 금물이다. 임신 가능성을 높여줄 뿐 임신, 출산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늦어도 30대 후

▶ 1면 '당뇨'에서 이어집니다

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김학준 교수는 “발이 부드러운 흙에 접촉하면서 그동안 자극을 못 받았던 근육이 자극을 받으니 심리적인 안정감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의학적 효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실험을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되면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식약처 등에서 검증한 뒤에 임상실험을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런 게 전혀 없이

‘내가 해 봤더니 괜찮더라’ 식으로 전파되는 건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겨울에 실외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임오경 교수는 “영하의 날씨에는 동상을 입을 수도 있고, 찬 기운으로 미세혈관이 수축되고 혈액 순환이 둔해진 상태에서 외상을 입었는데도 못 느끼고 계속 걷다가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황톳길 등이 조성된 곳에서 걷는 게 안전하고, 산길을 걷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스트레칭 필수, 1~2m 앞 봐야 위험물 피해
당뇨가 있는 사람은 절대 맨발 걷기를 해선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당뇨병 환자는 혈관 내피에 이상이 생겨 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는다. 심장과 멀어 혈액이 잘 가지 못하는 발에 작은 상처라도 나면 흠 속에 있는 감염 성분과 나쁜 균들이 침투해서 발이 썩게 되고, 심하면 절단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학준 교수는 “맨발 걷기를 하기 전에 발에 상처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발을 디뎠을 때 자극이 너무 강하다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중단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처음 맨발 걷기를 시작할 땐 무리하지 말고 2000보 이내로만 걷고 조금씩 거리를 늘리는 게 안전하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준비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건 필수다. 갑자기 맨발로 오래 걸으면 발 주변 뼈, 관절, 족저근막 등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걸을 때는 전방 1~2m 앞을 응시해야 유리조각이나 뽕족한 돌 같은 위험물을 피할 수 있다. 초보자는 황톳길→잔디밭→흙길→숲길→산길 순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게 좋다. 걷기가 끝나면 발바닥에 상처가 생

기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발에 습진이나 무좀이 있으면 맨발 걷기는 자제하는 게 좋다. 2006년 대전 계족산에 국내 최초로 14.5km의 ‘황토 맨발길’을 만든 조몽래 맥키스컴퍼니 회장의 발은 새겨들을 만하다. “맨발로 걸으면 암이 치유된다거나 ‘맨발로 가면 허서 있기만 해도 어싱이 돼서 병이 낫는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선 나는 잘 모른다. ‘내가 걸어 보니 좋더라’ 그거면 된 거다. 각자 몸이 하라는 대로 판단해 따르는 거다.”

정영재 기자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Mocurry Chiropractic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디지털 혁신으로 환자 만족도 확 끌어올린 '스마트병원'

병원 탐방 인하대병원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 바람이 거세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최첨단 기술이 의료 현장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병원 풍경을 크게 바꿔놓았다. 의료진은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한다. 거미줄처럼 뻗은 첨단기술 인프라가 병의 진행을 막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인공지능으로 질환 발병 위험을 예측하고, 원격 협진 시스템을 통해 이른바 '초연결' 진료 환경을 구현한다. 이는 고스란히 환자의 안전과 치료 만족도로 이어진다.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로 병원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스마트 기술을 병원 곳곳에 입혀 디지털 혁신을 꾀하고 있다. 진단·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특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스마트병원 전환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신영경 기자

인하대병원은 기술적 융합으로 변화를 주도한다. 의학과 공학을 접목한 의료 IT 인프라를 통해 환자 중심의 스마트 병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스마트 병원은 ICT 첨단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안전 관리와 진단,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개선한 미래형 병원을 의미한다. 고도화된 디지털 의료기술로 의료진이 치료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택 인하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임상 현장에 잘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며 “특히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의료 IT 고도화를 이뤄 환자의 안전과 치료 만족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 이 병원장은 “이러한 원격 협진 시스템은 지역 내 중증 진료 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진단 기술도 돋보인다. 인하대병원에선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방세동을 진단한다. 답카디오의 ‘SmartECG’ 솔루션을 통해서다. 심장 내과 김대혁·백용수 교수는 인하대 공대 최원익·이상철 교수와 협력해 2021년 7월 답카디오를 창업했다. 이들은 일반 심전도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발작성 심방세동을 답카딩 기법으로 예측하는 진단 기술을 개발해 주목 받았다. 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위험도를 가려내는 원리다. 백 교수는 “혁신형 의사과학자 사업을 통해 개발한 인공지능 심전도는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 심방세동 조기 발견에 유용할뿐더러 빠른 치료로 도와 중대한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6월부터 인공지능 심전도 진단 기술을 건강검진센터에도 적용하고 있다.

환자자기평가결과 도입, 만족도 개선 첨단 장비에 대한 투자가 아까지 않는다. 인하대병원은 지속해서 최신 영상 진단 장비를 도입하며 판독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최신 의



인하대병원은 원격 협진 시스템과 인공지능 진단 보조 프로그램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인하대병원]

료 장비를 통해 얻는 고해상도 이미지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인다. 특히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가 특히 출원한 ‘Elbow Bone Age’ 프로그램은 소아 환자 골연령 측정 검사의 판독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한다. 이 교수는 “프로그램에선 내장된 알고리즘을 통해 뼈 나이를 산출하고 자동으로 판독문을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수분이 걸리던 판독 과정을 15초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기술은 수술 후 재활 관리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고관절 수술 환자에게 적용하는 ‘스마트 인솔’이 대표적

이다. 스마트 인솔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환자의 보행 능력을 평가하는 특수 깔창이다. 개발에 직접 참여한 정형외과 유준일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신체 기능을 평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어 맞춤형 관절을 제작하고, 수술 후에는 영상을 통한 보행 분석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의 스마트 시스템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 향후 병원은 ‘전(全)주기 스마트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부터 진단, 치료, 재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녹

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병원은 2020년 환자자기평가결과(PRO)를 도입해 환자의 치료 만족도를 개선했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치료 전후 건강 상태와 변화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이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임상 분야와 연구, 각종 기술적 과정에서 스마트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며 “최첨단 기술이 환자와 의료진을 중심으로 촘촘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와 초연결 시대에 걸맞은 병원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백용수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교수

“인공지능 심방세동 진단 기술, 환자·의료진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

인하대병원에선 인공지능으로 심장 건강을 살펴 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한다. 심방세동처럼 조기 진단이 어려웠던 심장 질환을 답카딩 기법으로 파악해 추적 관리한다. 이 기술을 개발한 백용수(사진)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에게 인공지능을 통한 진료 전략과 기대 효과 등을 들었다.

우 혈전과 뇌경색 등 심각한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조기 발견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기존의 심전도 검사에선 심방세동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심전도 검사에서 심방세동을 발견할 확률은 1% 수준에 불과하다. 10초간 심장 리듬을 관찰하기 때 문에 평상시 정상 리

듬을 보이는 발작성 심방세동의 경우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하대학교 공학 박사들과 답카디오를 창업했다. 오랜 연구 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심방세동 진단 보조 프로그램인 ‘SmartECG’를 만들었다.”

—의료 현장에 어떻게 활용되나.
“심방세동은

현재 없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관건이다. 인공지능 기반 심방세동 진단 기술은 발작 중이 아닌 정상 범위 심전도에서 짧은 주기의 신호만을 이용해 심방세동의 진행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심장 질환의 발병 위험을 예측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돕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빠른 진단과 치료를 보조하고, 합병증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인 만큼 활용 가능성은 크다.”

—의료진과 환자의 공감을 얻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의료진과 환자가 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재 병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심전도 진단 기술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진단을 보조하는 역할이다. 의료진의 역할을 침범하는 게 아니다.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성, 안전성 향상을 위해 고도화된 IT 기술과 의료의 힘을 합친 결과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영경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증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분임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Invisalign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건강 칼럼

한국인들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인종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위암의 원인 중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80%를 차지합니다. 한국 성인들의 60~70%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구강으로 전염이 되는 균으로서 음식을 같은 식기에서 나눠 먹거나, 식기를 같이 쓰는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 사이에 전염이 높은 균입니다. 가족 중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환자가 있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테스트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외의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음식이 있습니다. 염장 식품, 질산염 화합물, 훈제 식품, 불에 태운 음식들이 위암의 원인이 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암이 그렇듯이, 위암도 담배, 술이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위암의 증세는 특별한 증세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병이 진행되고 난 후에야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조기 진단 시 5년 생존율이 80~90%이지만 늦게 발견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위암의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소화불량, 복통, 빈혈, 몸무게 감소 등을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위암의 진단 방법은 위내시경 입니

위암에 대하여



장지아
원장
일반 외과 원장

다. 위내시경 시 의심이 되는 부분을 조직 검사를 하고, 이 결과를 통해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진단을 받고 난 후에도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암 조직

이 위 벽을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에 따라 치료 순서가 달라지므로 위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암이 위 주변 림프샘이나 다른 내장기관에 전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PET-CT를 찍게 됩니다. 여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짜게 됩니다. 먼저 수술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먼저 할지, 아니면 약물 항암 치료를 먼저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암 수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부분을 떼어내는 부분 절제

술과 위 전체를 떼어내는 위 전절제술이 있습니다. 수술 종류의 선택은 병기와 상관없이, 위암의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암의 위치가 위의 하부에 있으면 하부만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위암의 위치가 상부에 있다면 위 전체를 절제하는 위 전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조기 발견된 위암의 경우 크게 개복을 하지 않고 복강경으로 수술을 진행해도 생존율을 떨어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합병증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복강경 수술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 (213) 674-7517

건강 칼럼

PTSD 제때 치유 중병 막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 등 정서적, 정신적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최근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위험성도 빨간불이 켜졌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전쟁이나 테풍, 지진 같은 자연재해, 화재나 붕괴 사고 같은 재난 등 외상 사건을 겪고 난 후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 또는 부적응 증상을 말한다. 학대, 폭행, 성폭력 등 죽음의 공포, 생명의 위협, 신체적 상해와 같이 개인에게 극심한 충격을 주는 외상 사건을 겪고 난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전쟁, 재난, 범죄 외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사건·사고는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가정폭력이나 교통 사고 등이 그것이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 신체적 폭력만 생각하기 쉬운데 언어, 정서, 정신, 경제적 폭력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가정폭력은 오랜 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당시에는 몰랐다가 이혼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다. 사고 후 한동안 운전을 하는 게 두렵거나 TV에서 차가 충돌하는 사고 장면만 나와도 당시 경험이 떠올라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난다거나 하는 증상이 1개월 이상 나타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코로나에 걸렸던 환자는 다시 걸리려 하거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코로나19 환자가 고통스러워하거나 사망하는 모습을 지켜본 의료진은 환자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 등으로 심적 고통을 받는 것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면 당시 기억이나 감정이 자주 떠오르고 꿈에도 나타나며 때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접하게 되면 갈



유진 박 전문의
할리우드 차병원

은 사건이 실제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착각, 회상에 빠지기도 한다. 반대로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 감정이 떠오르지 않도록 사건과 관련된 생각, 대화, 상황, 장소 등을 피하는 증상도 있다. 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정적인 기억,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당시를 왜곡해 기억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을 책망하며 자책이나 죄책감,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평소 예민해 사소한 것에도 과민반응을 보이고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폭발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외상 사건 경험 후 1개월 이상 지속해 일상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 등에 심각한 지장을 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보통 외상 사건 경험 직후 나타나지만 때로는 몇 개월, 몇 년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외상을 경험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 반응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거나 사라진다.

단, 외상은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외상 후 이 스트레스를 제때, 제대로 소화해야 한다. 무심코 지나가고 케어에 소홀하면 응어리로 남아 외상 후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장애로까지 악화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이롭다.

한방 칼럼

빈뇨·배뇨장애 방치하지 말아야

방금 전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고,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는 증상, 또 밤에 여러 번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불편함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빈뇨증은 소변 문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힘들고, 외출을 자제하거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야간의 잦은 소변은 수면을 방해하여 만성 피로, 노인들의 낙상사고와 같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

빈뇨는 소변을 지나치게 자주 보는 증상이다. 평균적으로 성인의 소변횟수는 4~6회, 수면시 0~1번 정도다. 만약 24시간 동안 8회 이상 배뇨를 하면 빈뇨로 정의한다.

하지만 2002년 국제요실금 학회회의에 따르면 환자가 소변을 자주 본다고 느끼는 경우, 배뇨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증상을 '빈뇨로 진단한다.

빈뇨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1.방광과 요도 기능의 약화다.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하는 기능이 약해지면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는데 요의를 느끼거나, 요도의 괄약근이 약해지면 소변을 참기 힘들어진다. 2.하부 요로계 감염과 습관성 방광염이다. 요도로부터 세균 침투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방광에 염증이 발생하여 배뇨장애를 유발한다. 3.골반저근육의 노화다. 골반저근육은 방광 아랫부분에서 근육과 질, 직장을 지탱해주는 널빤지 같은 구조물인데 노화, 분만과 폐경으로 호르몬 작용이 차단되면 골반저근육이 아래로 처지고 약해지면서 빈뇨가 발생한다. 4.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 전립선 관련 수술 후 괄약근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난다. 5.과도한 수분, 카페인 섭취와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빈뇨의 한방 치료는 침, 전기자극, 온열요법을



박인정 원장
LA 해성한방병원

통해 신장과 방광을 따뜻하게 하여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배뇨에 관여하는 장부의 기능을 회복시킨다. 또한 신장 기력을 강화하고 골반강 순환을 촉진해 골반저근육 조직 재건에 도움을 주는 한약치료도 도움이 된다.

빈뇨 예방과 개선을 위한 '골반근육 강화' 운동 소개한다. 무릎을 구부리고 천장을 보고 편안하게 누운 후, 배와 엉덩이를 천천히 천장으로 들어 올리면서 골반 근육과 항문을 위로 당겨 올려주는 느낌의 수축을 한다. 멈춘 상태로 10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 서서히 힘을 빼면서 원래의 자세로 돌아오면 된다. 10회 1세트, 하루 2~3세트 아침저녁으로 꾸준히 운동한다.

빈뇨 개선, 신장 기능 강화를 위한 한방차를 소개한다.

1.산수유: 따뜻한 성질의 신맛을 가지고 있고, 신장 기능을 보강하고 방광의 수축력을 높여주는 약재다. 차 만드는 방법: 깨끗이 씻은 산수유 15~20g을 1L 물에 30분 정도 중불로 끓인 후, 건더기는 체로 거르고, 산수유 차만 냉장 보관하고, 150~200ml를 따뜻하게 복용한다.

2.산약(참마): 신장과 방광 기능 강화하고 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칼륨 성분이 포함되어 혈액 속의 나트륨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복용방법: 참마, 우유, 꿀을 적당량 넣고 갈아서 복용한다. 기호에 맞춰 배, 사과, 바나나 등을 첨가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혜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9%	0.9%	13.9%	42.9%	2.9%	0.9%
매우물음	양요	노화사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기억력,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Sciatica

척추관협착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리기 힘들다

뒤로 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토이스

발목 뻠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일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문화 비타민



따끈따끈한 OTT 콘텐츠와 신작 영화·드라마는 물론, 아이돌그룹부터 K를 래식·아트·문학출판까지, 문화 현장 곳곳을 취재하는 문화부 기자들이 당신의 문화 감수성을 매주 업그레이드시켜 드립니다. 이번엔 K-뮤비의 세계입니다. 2000년 전후로 영화 같은 조성모의 뮤직 비디오가 히트했었죠. 20년 뒤 OTT를 통해 전 세계가 보는 K-뮤비의 최신 트렌드는 뭔가요?

요즘 K뮤비 다시 무비 찍는다

(Music Video) (Movie)



RM의 뮤직비디오는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의 이성진 감독이 연출했다. [사진 빅히트뮤직]

사람들 사이에서 허공을 응시하던 방탄소년단(BTS) RM(김남준)이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문을 통과하자 양치질하던 아내와 딸이 인사를 건네고, 또 다른 문을 통과하자 자신에게 화내는 애인 모습이 보인다. 지난 5월 발매한 RM의 정규 2집 선공개곡 '컴백투미' 뮤직비디오의 장면들이다. 영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RM의 뮤직비디오 연출은 넷플릭스 '성난 사람들'의 이성진 감독이 맡았다. 이 감독은 빅히트뮤직을 통해 "뮤직비디오를 지탱하는 주춧돌과 같은 '문' 아이디어는 RM과 대화하면서 떠올랐고, (문에 달린) 세가지 빛의 색깔은 '성난 사람들' 최종회에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완결된 서사와 세계관·메시지를 담아내는 뮤직비디오가 늘고 있다. 춤·퍼포먼스·패션 등 이미지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 뮤직비디오는 스토리텔링이 특징이다. 짧은 영상

'스토리텔링' 뮤직비디오의 부활

춤·퍼포먼스 중심의 뮤비서 탈출 노래 연관된 이야기·세계관 담아 영상 완결성 위해 영화감독이 찍고 탕웨이·양조위·최민식 등 연기

에 이야기를 집약적으로 담아내려면 영화적 요소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배우를 넘어 감독 등 영화 제작진이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하게 된 건 필연적 결과다. '컴백투미' 뮤직비디오 제작에는 영화 '헤어질 결심' '암살'의 류성희 미술감독과 '만추' '1987'의 김우형 촬영감독이 함께했다. 지난 1월 아이유의 '러브 윈스 올' 뮤직비디오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화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단편영화 형식의 뮤직비디오도 나왔다.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은 최근 정규

2집 '로맨스: 언톨드'의 트레일러를 12분짜리 단편영화로 만들었다. 뱀파이어가 탄압받는 세상에서 일곱 뱀파이어가 자신을 지켜준 인간 소녀를 찾아가기 위해 총격전을 벌이는 내용인데, 영화 '뿔' '발레리나'의 이충현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임영웅은 쿠팡플레이 티빙에 지난 6일 자신이 주연한 단편영화 '인 옥토버'를 공개했다. 러닝타임이 31분인 이 영화는 지난 5월 발매한 노래 '온기' 뮤직비디오의 확장판이다. 유명 뮤직비디오 감독 권오준이 메가폰을 잡았다. 작품을 기획하고 초기 시나리오 작업에도 참여한 임영웅은 향후 연기에 도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드라마에서도 보기 어려운 유명 배우가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한다. 지난 2월 아이유 미니 6집에 수록된 '쉬..' 뮤직비디오에는 탕웨이가 출연했다. 지난해 자이언티 정규 3집 타이틀곡 '모르는 사람' 뮤직비디오엔 최

민식, 뉴진스 미니 2집 수록곡 '쿨 위드 유' 뮤직비디오엔 양조위가 나왔다.

단편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는 2000년 무렵 유행했다. 이병헌·김하늘이 출연한 조성모의 '투 헤븐'(1998)을 시작으로,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가 쏟아졌다. 스카이(최진영)의 '영원'(1999)에는 장동건·차인표 등이 출연했고, 신하균·차승원·이요원이 나온 포지션의 '아이 러브 유'(2000)는 캐나다 로케이션으로 화제가 됐다. 다만 당시 뮤직비디오는 노래(가사) 내용과 별개의 비극적 서사를 그렸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2000년 전후 뮤직비디오 속 노래는 백그라운드 음악(BGM)처럼 깔리며 비극적 서사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며 "요즘은 노래(가사)와 잘 어울리는 감각적 영상 미학을 추구한다"고 분석했다.

요즘 K팝 뮤직비디오는 기승전결이 확실한 극적 서사보다는 은유적 표현

쪽이 더 우세하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요즘 뮤직비디오는 보는 이들에 의해 다양한 목소리로 해석이 가능한 게 특징"이라며 "팬들이 다양한 해석을 나누며 자신들만이 이해하는 코드를 만들고, 이는 역으로 팬덤을 결속시키는 효과도 낸다"고 설명했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며 한때 뮤직비디오를 만들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 소비가 늘면서 뮤직비디오는 노래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요소로 다시 주목받게 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뮤직비디오가 영화제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달 4일 국제 단편영화제 '쇼트 쇼트 필름 페스티벌&아시아'에서 자신들이 출연한 영상 '슬플릭스'로 '글로벌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를 수상했다. '슬플릭스'는 미니 음반 '락스타(樂-STAR)' 수록곡 '리브'를 BGM으로 활용한 뮤직드라마다. **이현희 기자**

“한국영화, 스타배우에 기대지 말라” 홍콩 누아르 대부의 일침

“배우들의 과도한 출연료로 인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점점 줄어드는 게 영화 시장 현실이다. 제작비의 절반 정도를 배우가 가져가니, 창작자는 발전할 동력이 떨어진다. 한국영화가 위기라고 하는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닐까.”

홍콩 누아르 대부 조니 토(杜琪峰·두기봉, 69) 감독이 한국영화 위기에 대해 스타 배우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2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마

스터클래스 참석차 내한한 그는 지난 5일 인터뷰에서 “영화는 독립적인 사 고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니 토 감독은 1980~90년대 홍콩 영화 황금기에 코미디·무협·액션 등 상업 영화를 주로 했다. 저우룬파(周潤發·주윤발), 량차오웨이(梁朝偉·양조위), 장샤오치(張曉祺·주성치), 류더화(劉德華·유덕화) 등 스타들과 흥행작을 냈지만, 1990년대 초 천문학적 몸값의 스타들에게 좌지우지되는 제작 방식에 염증을 느꼈다.

1996년 오랜 친구인 웨이자후이(韋家輝·위가휘) 감독과 영화사 '밀키웨이 이미지'를 설립한 후 건조한 누아르 스타일을 완성했다. '흑사회'(2005)로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익사일'(2006)과 '매드 디텍티브'(2007)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등에 초청됐다. 그의 연출작 '마약전쟁'(2013)을 리메이크한 한국영화 '독전'(2018)은 520만 관객을 동원했다.

올해 부천영화제가 4K 디지털 복원판으로 상영한 '용호방'(2004)은 일본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의 데뷔작 '스가타 산시로'(1943)를 오마주한 작품이다. '스가타 산시로'는 한 청년이 유도대결을 통해 성숙해가는 내용이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광팬'을 자처하는 조니 토 감독은 이를 알고올 중독자로 전락한 유도 선수가 젊은 유망주의 도전장을 받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재해석했다. 그는 “'용호방'을 촬영한 2003년 당시 전염병 '사스'(SARS)로 인해 홍콩이 경제난을 겪고 사회 분위기가 우울했다”면서 “'늘 파이팅'을

외치는 일본 영화·드라마처럼 열정과 꿈을 갖고 미래로 달리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를 통한 이런 문화 교류를 '조용한 혁명'이라 일컫는 조니 토 감독은 최근 10년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주목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2007)과 '오아시스'(2002)를 가장 좋아한다는 그는 “홍콩영화는 전성기에도 칸 영화제에 초청된 건 왕자웨이(王家衛·왕가위) 작품뿐이었는데, 한국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늘 뜨겁다”면서도 “특정 배우가 아니면 영화가 돈을 못 벌 거란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원정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룸케어, 푸드스탁,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칼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왜 홍명보인가 ... “외국감독보다 리더십·전술 나왔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의 신임 사령탑으로 홍명보(55) 울산 HD 감독을 선임한 이유 8가지를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 7일 홍명보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내정했는데 이날 축구협회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임의 공식 발표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명보 감독은 2027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한국을 이끈다.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는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빌드업 등 전술적 측면 ▶원팀을 만드는 리더십 ▶연령별 대표팀과 연속성 ▶감독으로서 성과 ▶현재 촉박한 대표팀 일정 ▶대표팀 지도 경험 ▶외국 지도자의 철학을 입힐 시간적 여유의 부족 ▶외국 지도자의 국내 체류 문제 등 8개의 선임 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이임생 기술이사의 설명은 브리핑보다 해명에 가까웠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이 지난 2월 아시안컵 부진으로 경질된 이후 5개월 가까이 외국인 지도자를 물색하다 결국 홍 감독을 선임한 것에 대해선 “9월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이 시작하는데 외국 지도자들이 한국 선수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봤다. 그들의 철학을 입히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홍 감독은 ‘원팀 정신’을 만드는 데 탁월한 지도

이임생 이사가 밝힌 선정이유 8가지
국내 체류 등 외국감독 선정엔 한계
“밤 11시에 홍 감독 자택 찾아가 설득”
2027년 아시안컵까지 임기 보장
연봉도 외국감독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라고 밝혔다. 이임생 이사는 또 “지난 5일 오후 11시에 홍명보 감독 자택을 찾아가 간곡히 설득했다. (홍 감독이) 날 만나줄까 고민, 두려움이 있었다. 왜 한국 축구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 말씀드렸다고 털어놨다.

이 이사가 홍 감독에게 제안한 조건은 과격적이었다. 한국 축구의 당면 과제는 북중미월드컵이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월드컵 아시아 최종 3차 예선이 열린다. 그런데 이 이사는 북중미월드컵을 넘어 2027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까지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단기간의 결과로 평가하기보다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싶다”며 “(2020년부터 지휘한) 울산을 계속 이끌어가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보완하기 위해 세계 축구의 중심인 유럽 출신 코치를 적어도 2명 붙여주겠다고 했다. 이 이사는 “(이런 조건을) 홍 감독님이 받아들였다. 홍 감독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유럽 코치들과 조화를 이룬다면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 간 연계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봉도 외국인 지도자 수준으로 크게 올렸다. 이 이사는 “액수를 밝힐 수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8일 홍명보 감독의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이사는 “홍 감독이 ‘원팀 정신’을 잘 만든다”고 했다. [뉴스1]

없지만, 이제 한국 감독들도 외국 감독 못지않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홍 감독을 선임하기까지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 결정도 (정몽규) 회

장님께 보고하지 않았다”며 “최종 후보자 명단을 받고 회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지금부터 모든 결정을 다 (혼자서)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피주영 기자



홍명보

파리 향하는 뉴펜저스 ‘어게인 2020’

(뉴 어벤저스+펜싱)

멤버는 바뀌었지만, 자신감은 그대로다. ‘어벤저스(어벤저스+펜싱)’에서 ‘뉴펜저스(뉴 어벤저스)’로 변신한 펜싱 사브르 대표팀이 파리올림픽에서 금빛 찌르기를 약속했다.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올림픽 때마다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2012 런던올림픽에선 펜싱 단체전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냈고,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사상 첫 2연패에 도전한다.

한국 펜싱대표팀은 그동안 김정환(41)·구본길(35·이상 국민체육진흥공단)·김준호(30·화성시청)·오상욱(28·대전시청) 등 4명이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끝

으로 멤버가 바뀌었다. 파리올림픽에는 기존 멤버 가운데 구본길과 오상욱만 출전한다.

최근 열린 펜싱대표팀 출정식에 참석한 구본길은 “정환이 형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깨달았다. 리더, 캡틴이라는 자리가 힘들다는 걸 느꼈다”며 “내가 무너지면 후배들도 무너지기 쉽다. 말형인 내가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블 영화 속 ‘어벤저스’는 기존 영웅들이 떠난 뒤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해 힘을 보탠다. ‘뉴펜저스’에도 젊은 피가 합류했다. 20대의 도경동(25·국군체육부대)과 박상원(24·대전광역시청)이 주인공이다. 구본길은 “새 멤버

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4명이 색깔도, 분위기도, 펜싱 스타일도 각각 다르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기대해도 좋다”고 했다.

막내였다가 둘째가 된 오상욱은 “(젊은 선수) 두 명이 들어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전 못지않은 전력으로 파리올림픽을 치를 것”이라며 “그동안 형들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후배들이 저를 따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펜싱대표팀에서 물러난 김정환과 김준호는 파리올림픽에 선수 대신 해설위원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구본길은 “우리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좋은 해설을 해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욱은 “형들과 가끔 통화하면 ‘몸이 어떠냐’고 물어본다”며 “정환이 형은 워낙 말을 잘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0대 중반으로 대표팀 만행이 된 구본길은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그동안 네 차례 올림픽을 치르면서 욕심도 내보고, 내려놓기도 했다. 그래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 장점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며 “개인전 준비는 이미 끝났다. 색깔과 상관없이 메달을 따는 게 목표”라고 했다. 구본길은 또 “그전에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훈련을 하고 준비했다. 마지막 올림픽을 준비하는 요즘은 훈련 과정 자체가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4명의 선수 중 세계랭킹(9위)이 가장 높은 오상욱은 개인전 첫 메달 획득을 꿈꾼다. 올해 초 손목 부상으로 슬럼프를 겪었지만, 이번 달 쿠웨이트 아시안선수권에서 우승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기르던 수염까지 깨끗하게 면도한 오상욱은 “파리올림픽에서 후회 없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2, 은 1, 동 3개를 따내 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펜싱은 여자 에페와 사브르 등에서도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세계랭킹 2위인 에페 대표팀 송세라는 “단체전뿐만 아니라 개인전에서도 금메달 획득이 목표”라고 말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윤지수는 “여자 사브르도 기대해 달라. 런던올림픽 못잖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효경 기자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리에서 3분, 워싱턴로 북대 우편 센터(+)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챔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북대/윈어웨이(+)에서 10분, 챔틀리 북대/윈어웨이에서 20분 거리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상자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19세기 런던

금요일 밤이 되던 금세기 최고의 마술사 로버트 언더의 마술쇼를 보기 위해 극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우와~

저 작은 상자에서도 대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야?

한 데 로버트와 라이벌 관계였지만 지금은 대관모를 걱정해야 하는 한심한 마술사로 전락해 버렸다.

어떻게 좀 해봐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시끄러!!

무슨 소리야. 마술은 외적으로 판타지이지만 철저하게 계산된 과학의 산물 이라구.

얘기 들었나? 로버트가 알프레드를 이기기 위해 악마와 계약을 했다더군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그런데, 어쩌면 그럴 지도 모른다.

아무리 연극을 해봐도 그의 마술의 수수께끼는 풀 수가 없다.

역시 평범한 무대장치에 불과해.

내 이름은 알프레드 보든

그렇다면 역시 저 상자에 비밀이 있는걸까?

뭉미?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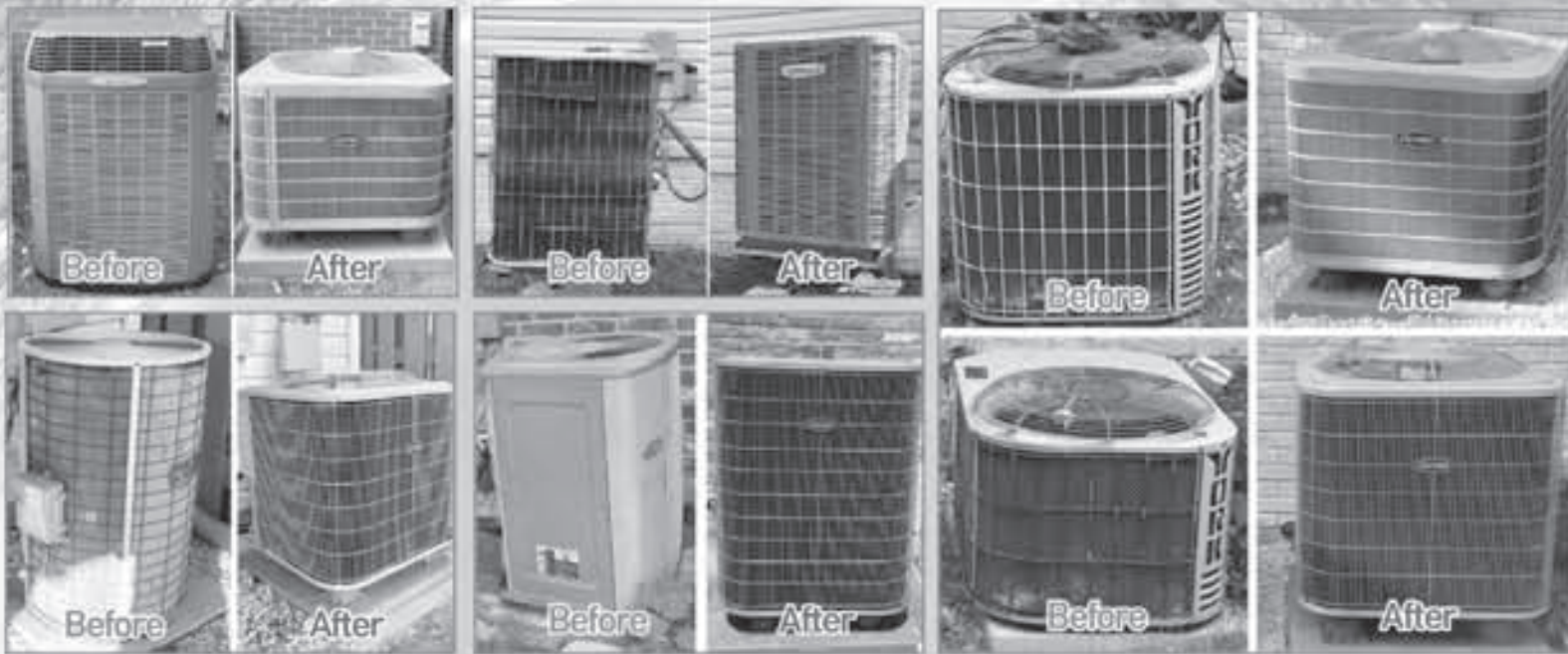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7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뉴욕 광어낚시
동우회 회원 모집**

마감 목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 마감

주말 금요일 밤
Frederick(MD)
270, 80 교차로 E.
EXXON GAS STATIONS에서
3명 이상 모여서 출발.

토요일 아침 뉴욕에
도착해서 Seo Queen VII Boats
7시 보트 출발, 차량, 낚시대 완비

202.553.85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 풀타임/파트타임
- * 영어/컴퓨터 사용
-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오는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출판고가 1개월 \$20 유료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출판고 서비스 해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판고로 무료 게재하지 않습니다. 생활안내 무료 광고를 애용해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권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바랍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보험, 골프레슨, 홈비즈니스 등 같은 전문 분야 분들이 공동 광고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이미지전달을 통해 사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리세요.
▶ 자세한 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인/구직

▶▶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 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애난데일. 지원한 사무실 파. 풀타임 근무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종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어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라켓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력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지'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종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종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라켓시티 240-426-5678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싱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허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음식점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쉬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라켓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식당/제과/델리/식품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중앙일보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머리하시는분
▶ 301-926-3638 / 301-538-4246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 케어를 원하시는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가능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 원하시는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루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세탁/얼터레이션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스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 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동글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소통에서 파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트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 301-537-3800

연합갈리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에어컨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703-635-9998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정비/바디샵

HD Plus Construction 밀웍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카펜터(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프로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 Glimck2@gmail.com

휴게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휴게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트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가능하신분 구합니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맡아서해주실분 (703) 473 6022.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숙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분 은퇴하신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부.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퓨터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첼트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 703-244-3453
애난데일 Hmart 옆 \$2,300
방3, 화2, 유포 (전기별도) 7/1 입주가능

부동산 렌트

703-975-0123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운, 전용주차장 2대, \$2,200
▶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또는 직장여성 욕실별도/세탁기 월 \$640 (유포)
대답업으면 메시지요망 614-615-9054

MD 락빌 홀푸드근처. 1180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교 전체 새마루. 7월 중순 입주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방 렌트

▶▶ 애난데일 홈디포 근처 방 렌트 유포
703-598-5719

▶▶ MD 실버스프링 Calverton(교통 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 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1, 화장실 1, 냉장고, 인터넷 취사가 가능. 출입문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애난데일 메시아 장로교회 뒤 지하방/유포
703-887-5173

Fairfax VA 비엔나 전철역 근처 66도로 495 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 자리도 있습니다.
571-232-6052

TTA 애난데일 콘도 방1, 주방/욕실/지정주차, 세탁기/냉장고, 남자분/금연자
571-355-6624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 703-470-5238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심신이 편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텃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추천물건

근교 단독주택 \$574,000
23에이커, Rambler, Ground Level, No HOA

단독주택 \$526,000
방3, 차고1, 2000스퀘어, 2004년도

55+ 시니어 주택 \$510,000
2024년도 신축, 방2, 화2, 차고1, HOA (\$150)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JunkRemoval.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구인/ 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롯데, H-mart 2분. 출입문 별도, 인터넷,
화장실, 샤워, 유틸리티 포함. 출퇴근 하시는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센터빌 콘도, 방2, 화장실2, 2층, Loft애난데
일 도서관서동쪽 0.7마일 콘도 방1,
취사가, 월 \$840(유포), 남금주금연자
571-335-3739 (6pm 이후)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단독주택 센터빌 CVS 근처
인터넷, 윗층근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애난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가능, 유포 \$700,
직장다니는 남/녀, 즉시입주
703-350-1986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바람
571-214-0188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 사용공간 룸2개,
리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일
,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싱글/타운/콘도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
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애난데일 H mart 옆 콘도 매매 (owner)
\$340,000 방 2 화 2 세탁기 1218 SF.
Condo fee \$390
703-350-1986

1.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주택, 방4, 화 4, 펜리런렘블러스타일
2.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뫼물,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킹아웃 베이스먼트
3.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리지
4.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미셸 & 케빈 신 부동산
건물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샤워센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703-395-3128 / 571-243-5797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샤뫼물,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증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매릴랜드 로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Sale Price: \$290,000
·Weekly's sales: \$6300. (평균)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증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1.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가능. 좋은장점 있음.
2. DC.리뷰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요정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썰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버크레이크 헬더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춘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입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 보호자 봉사 하실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 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 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
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
다. 교회, 식당 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공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피맛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더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발행
필요정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 카톡ID: jimdong123
-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싿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Calculus/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토요타 2005년식 코롤라 199000마일
에어컨. 히팅. 4타이어 아주 좋음
모든상태 좋음
703-419-0337

무빙세일 역 이민 관계로 가구 및 생활용품
을 정리합니다.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LG UHD AI ThinQ 65" 4K Smart TV \$230
거의 새것. TV original box/case.
571-232-6071(문자요망)

건축/페인트/마루

▶▶A HOME STAR
CONSTRUCTION 리모델링 부엌, 화
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
트랙터 MR. SONG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동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트크리닝, 가동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동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삼균,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싱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방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선박, 확실한민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밥-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중앙유리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
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입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람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벌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ndy: Hey Bruce, there's Ray. I thought he was sick.
앤디: 브루스, 저기 레이가 왔어. 아픈 줄 알았더니.
Bruce: He was in bed for at least three months. (calling out) Hey Ray!
브루스: 레이는 지난 3개월동안 누워서 지냈어. (크게 부르면서) 레이!
Ray: (walking over) Hi Bruce. Hi Andy.
레이:(걸어오며) 안녕 브루스. 잘 있었어 앤디.
Andy: You look great. How are you feeling?

앤디: 좋아보이네. 좀 어때?
Ray: Fit as a fiddle but it sure took a long time.
레이: 아주 좋아. 오래 걸리긴 했지만.
Bruce: It's great to see you up and about.
브루스: 일어나서 다니는 것 보니까 좋네.
Ray: Thanks. I did get a little stir crazy.
레이: 고마워. 좀이 쑤시긴 했지.
Andy: I'm sure you did.
앤디: 왜 안그랬겠어.
Bruce: When do you go back to work?

get into the swing of (something); ~에 익숙해지다, 일의 리듬을 타다

(Andy and Bruce are at a bowling alley ...)

(앤디와 브루스가 볼링을 치고 있다...)

브루스: 언제 직장에 복귀해?
Ray: Next week. I can't wait to get into the swings of things.
레이: 다음주. 어서 다시 원래 리듬을 찾고 싶어.

다시 활동하다
"It took me six months to get up and about after the accident." (사고 이후에 다시 일어나 다닐 수 있을 때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 ▶ to be or feel fit as a fiddle: 아주 건강하다
"She's 75 years old but she's fit as a fiddle."
(그녀는 75세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 ▶ up and about: (아픈 후에) 일어나 잘 걸어다니다

▶ get go or be stir crazy: (한 곳에만 오래 박혀있어서) 좀이 쑤시다 답답해서 못견디다
"I'm going to go stir crazy if I don't get out of this house."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난 좀이 쑤셔서 못견딜 겁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가로열쇠

(1)국민의 대표로서 입법부의 구성원. 내일 뽑
조 (4)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가짐. □□취□
(7)모태 안에서 태아가 움직임. 어떤 일이 생겨
날 기운이 싹틈 (8)얼굴을 곱게 꾸밈 (9)아주 적
적하고 쓸쓸한 풍경. 앞일을 내다볼 수 없게 감
감하고 답답한 지경이나 심경 (11)하늘에 오름
(12)자기의 아내. 안사람 (13)손을 대어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두어 거친 땅 (14)악한 일을 한 사
사람이 죽어서 간다고 하죠 (15)부처 앞에 공양을
드림 (16)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사병에게 주어
지는 계급. 일등병의 아래로 가장 아래 계급이
죠 (19)넋째 손가락. 약손가락. 이름이 없다고
하여 ~로 불렀다고 하죠 (21)12세에서부터 19
세까지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 (22)천장을 알
지 못함. 물가 따위가 한없이 오르지만 함 (24)
큰 절에 딸린 작은 절. 외설악에 신흥사가 있다
면, 내설악에는 백담사가 있고 백담사 부속 ~로
는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이 있다 (25)해안이
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땅. 두메
(26)바로 지금 처음으로 들음 (27)금의 잔부스
러기. 아주 드물고 귀중한 것

세로열쇠

(1)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함 (2)일정한 목
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데 모임 (3)참외·수박을
심은 밭을 지키기 위하여 지은 막 (4)활동이 완
전히 끝난 화산 (5)자기의 것으로 지니어 간직
함. 개인 ~ 문헌 (6)아주 환하게 밝은 세상. 이
~에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9)입에 맞는 딱.
제 마음에 꼭 드는 사물 (10)무, 생각, 사과, 배
따위를 가는 데 쓰는 기구 (11)장삼과 고깔을 걸
치고 복채를 쥐고 추는 민속춤. 삼현육각의 반주
에 맞추어 추는 불가의 번뇌를 해탈하는 뜻이 담
긴 무용이죠 (13)위엄이나 지위 따위에 놀리어
두려워서 몸 둘 데가 없음 (16)순금 (17)밤중에
위험한 곳을 표시해 주는 항로 표시 (18)남편은
쳐갓집, 아이들은 외갓집, 아내는 ~ (20)적의 사
정과 나의 사정을 자세히 알. ~면 백전불태 (22)
한문 학습의 입문서. 중국 양나라 주홍사가 하룻
밤 사이에 이것을 만들고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
고 하죠 (23)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보내
는 돈 (24)물속에 잠겨 보이지 아니하는 비위나
산호 (25)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에 쓰던, 붉고
굵은 줄

스도쿠

			9			3	2	
2		1			7			
5	6							
				9			7	5
				6				8
6	8		1	3		2	4	
	5			7	9			2
		6			1			
	7	3			8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
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
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
어 넣어야 합니다.

4	1	5	8	2	9	3	7	6
3	6	7	1	4	5	9	2	8
2	9	8	6	7	3	4	5	1
6	4	2	5	3	1	7	8	9
8	3	1	2	9	7	5	6	4
5	7	9	4	6	8	2	1	3
7	8	4	3	1	2	6	9	5
9	5	6	7	8	4	1	3	2
1	2	3	9	5	6	8	4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기타지역

매매 구인

30년 이상된 **미용재료상**
안전한 라티노 지역
역력: 인벤토리만!
LA 지역
(818)746-0521

성업중인 **우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정원기구 수리/판매점
30년 한주인 운영, 반가격
가든그로브 (714)788-4336

식당 주방일하실분
부부팀도환영, 숙소제공
알래스카 (907)855-1228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Hello K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게재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미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효유

1-213-210-9720/papaaaa.com

서류 대행업소 매매

LA 한인타운 최고의
이민, 법률 서류 대행 사무실

- 가격 \$36만
- 주5일 (9-5시)
- 월순의 \$1만5천
- 30년 운영 은퇴

(213)712-4294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면 **Up to 40%**
헷산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상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FBS solutions

5분만에 100마일 충전가능 = 300kW

한인최초 미국 굴지의 **EV충전소 제조 회사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소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 할수있습니다**

문의: Jay Park Jaepark2000@yahoo.com
213-605-1122, 714-822-7150
Sales Agent 모집중 (선착순 인원제한)
개인땅이나 건물주 연락 바랍니다

앞으로 법적으로 새 상가나 새 아파트에는 EV 충전소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EV 충전소 설치의 장점

1. 내 땅에서 전기 충전소 설치하면 24시간 수입 창출
2. 트래픽이 많아지고 기다리는 동안 수입 창출 3
3.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높은 Grant 를 받을 확률이 좋다
4. FBS 를 통해 설치 하면 공사비가 타 회사 대비 70% 절약 할수있다

12541 E. Carson St., Hawaiian Gardens, CA 90716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